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에 물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주시어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히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4월 5일 (토) 제 147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신학교 교수들이 말하는 고난주간의 의미

## 2014년 고난주간 4월 14일-19일

매년 맞이하는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시간.... 2014년 고난주간(4월14-19일)을 맞으며 신학교 교수들이 생각하는 고난주간의 의미는 어떤지 알아봤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신학대학교 한인목회학

박사 프로그램 디렉터인 다니엘 뉴먼 교수, 풀러신학교 한인목회학박사원 원장 황진기 교수, ITS 한국어프로그램 디렉터 김재영 교수, 그리고 월드미선대학교 대학원장 신선묵 교수가 참여했다.

#### 황진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확인하라

#### 다니엘 뉴먼 그리스도와의 연합연습...고난의 열매에 초점 맞추라

#### 김재영 십자가 창문으로 영원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라

#### 신선묵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신앙인 정체성 회복하라

#### 황진기 교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공통 케리그마(고전15:1-11).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중요성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다.

고난주간을 맞으며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자리로 밀어두었던 십자가를 다시금 우리 생각과 삶의 중심 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이것은 단지 십자가 장신구를 몸에 부착하거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상징물을 휴대한다고 가능한 일은 아니다. 십자가를 내 생각과 삶의 중심에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십자가 대신 내 생각과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비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내 마음을 온통 사로

잡고 있는 TV드라마를 비유하 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의 경우 온라인 게임을 삼가거나 줄여야 할 수도 있고, 금욕적인 절제를 통해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온갖 것들을 비우려는 노력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 가져 오기 위해서는 이런 비우려는 노력 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에 비추어 생각과 삶의 질서를 다시 잡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따라 다른 이의 유익을 위해 내 이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확대하기 위해 미움과 다툼보다는 화해를 택하고, 정죄와 배척보다는 용서를 택하기를 한 번이라도 더 의식적으로 실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6:17)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흔적, 곧 스티그마(낙인)는 활례로 상징되는 세상적 관점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십자가에 일치된 삶이다. 바울의 경지가 나의 현실과는 너무 차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의 열매에 초점 맞추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자.

이가 난다고 느낀다면, 최소한 고난주간에라도 내 생각과 삶 속에서 예수의 스티그마를 확인하려는 각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 다니엘 뉴먼 교수

고난주간의 의미를 생각하면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의 연습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 나 자신 역시 죽음의 길을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3면으로 계속)

###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 패스터스닷컴, 짐 콜린스의 공동체 성장원리 소개

교회에서조차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과업을 정한 후에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곤 한다. "우리 교회에는 찬양사역이 더 활성화 되어야 해. 좋은 찬양사역자 없나?" "외국어 예배를 시작해 봐야겠어. 영어사역자 좋은 사람 없을 까?" "좀 더 훌륭한 홈페이지와 회지가 필요해. 글 잘 쓰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아는 사람을 뽑아야겠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교회의 사역을 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우리도 그것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사역자들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으려 하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에 집중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 집중, 교회 일꾼으로 적합한 사람과 함께 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정해진 과업에 적절한 사람을 찾는 것은 언제나 쉽지 않다. 이는 미혼인 젊은이가 "이상형"을 정해놓고 그에 꼭 맞는 배우자를 찾는 방식과도 같은데, 대부분 실패하게 마련이다. 무엇보다 이런 방식은 사람을 과업을 이루기 위해 투입해야 할 요소 중 하나로 여기는 태도이기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의구심까지 갖게 한다. 그러나 굳이 이것이 성경적이나 아니냐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

짐 콜린스는 많은 기업들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 하였는데(그의 저서, Good to Great), 성공한 기업들, 특히 그 중에서도 "위대하다(Great)"고 평가할만한 기업의 지도자들은 먼저 할 일을 정한 후, 그에 맞는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선 유능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했다는 사실이다. 즉 "무엇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고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갔다.

그는 위대한 기업은 탁월한 비전을 제시한 후에 그 비전을 이루기 적합한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비유하자면 버스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정해놓고 그 버스에 탈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함께 버스에 탈 사람을 먼저 정한 후에 그 버스가 어디로 갈 것이냐를 정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 먼저" 방식이 기업을 성공하게 만들고, 위대하게 만드는 길이었다.

결국 교회가 아니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조차도 일을 먼저 정하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투입하는 방식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으며 "사람 먼저" 철학이 성공의 길이였다는 사실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시사점이자, 경고일 수 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금 내 옆에 없는 누군가"를 찾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사람들"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사람"을 찾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으로서 적합한 사람"과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2면

전인적 치유와 지역사회 요구 부응하는 교회는 성장!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 원장)



9면

방지일 칼럼 "본대로 들은 대로"



16면

미국사회 사형제도 지지율 갈수록 떨어져





# MUSICAL ETERNAL LIFE 2014

## REDEMPTION

LA 에서 만든 브로드웨이를 능가하는 초대형 뮤지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4월 11일 (금) pm7:30, 12일 (토) pm7:00, 13일 (주일) pm6:30  
장소: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 150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2012년 한국일보 - 연출과 노래와 안무가 뛰어난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뛰어난 작품이다.  
2013년 기독교 사상 최대규모의 뮤지컬.. 명품 기획과 인기로 박스, 교회 문화 사역에 새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주최: 은혜 한인교회  
주관: 창조문화 선교단  
후원: 복음방송, CTS, 한국일보, 중앙일보, 크리스찬 헤럴드  
출연: 한준수, 박선영, 권상욱, 김호기, 박우정, 문성수, Janet Lee, 서정숙, 정성예, 조형은, 신동혁, 송민영, 신비, 유진, 신정아, 오수열, 추영우, 김재익, 전용현, 사무엘전, Peter Yi, James Kim, 서지석, 손문식, 윤인자, 강관철, 정창현, 김성대, 우미선, David Lee, Nina Kim, 김병규, 서예원, Joyce Ahn, Ashley Kim, 인혜송  
Heaven's Melody 아역배우 40명, 엑스트라 배우들 박키니의 120명

고문: 한기홍 목사, 국장: 이덕용, 연출/감독: 김연철, 행정: 송민영, 부행정: 유한나, 신비, 서기: 서지석, 회계: 김병규, 안무: 이수희, 음악감독: 서주원, 권상욱, 소품팀장: 셸리 황, 관리팀장: 임상국, 의상팀장: 이재정, 의상팀원: 김희, 김덕의, 강선자, 강수아  
무대진행: 김진아, 임윤경, 무대장치: 우종수, 신 사무엘, 김승기  
사업팀장 및 광고총괄: Ted Kim, 광고팀장: 김기덕, 비디오: 홍문학  
분장: 박지상, 이민정, 한별, 김주연, 이운선, 번역및 자막: 김나희, 미디어팀장: 백승환, 미디어감독: 김승욱, 음향감독: 최경태, 사진: Robert Choi, 이영주  
그래픽 디자인: 최익정, 이용욱, Heaven's Melody Director: Arlene Kim

**Ticket: \$10**  
예매처: Fullerton: 은혜사점 (은혜 한인교회 내)  
LA: 조이 기록 박물관, 기독교 센터  
Cerritos: 복음사  
온라인 예매: www.itickets.com  
대표전화: 714.446.6200  
은혜사점: 714.446.1006





시론

사슴나무골에서 가꾸는 텃밭 이야기(3): 생각이 삶을 인도합니다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세상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하는 법인체와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나 학교, 자선단체와 사회 사업 기관들이 대표적인 비영리단체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에서 요즘 주목을 받는 것이 소위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되, 영리나 최우선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Social Minorities)들을 돕기 위해 생산 및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지칭합니다.

한국의 포항에 있는 기독교학교인 한동대학을 다니던 임정택이란 청년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평생을 살기로 결심했다는 북경대학 학생을 만난 후, 창업을 통해 대학 기업을 하는 꿈을 꾸고 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다가, 장애자들 가운데서도 정신장애자들이 가장 취약함을 느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아무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 정신질환 장애자들을 훈련시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해줍니다. 그리고 한동대학 내에 첫 커피전문점 '히즈빈스 커피'(His Beans Coffee)를 오픈한 후, 4년 만에 포항 내에서 5호 점을 개설합니다. 그동안 배출한 정신장애 바리스타만 26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임정택 형제는 '향기내는 사람들'이란 사회적 기업의 대표로 있습니다. 이 기업의 정신은 성경 말씀 한 구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하셨습니다. 한 청년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은 망상이나 헛된 꿈처럼 버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 작은 생각의 씨앗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열매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생각은 우리 삶의 근원입니다.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뿌리가 자라야 새싹이 돋고 가지가 자라 줄기를 이룹니다. 풍성한 가지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것이 창조주의 섭리입니다. 짧은 생각이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도 어쩌면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들의 열매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구체적인 꿈과 비전을 담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사상가인 폴 발타제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이 생각한대로 흘러간다는 의미심장한 말인 것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에 도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안정된 모든 현재의 삶을 버린 채, 하나님이 인도하실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택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 속에서 순종이라는 놀라운 목적을 인정해 주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Covenant)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도전을 가로막는 것이 두려움과 나태함이란 생각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실패자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과, 행동은 하되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잘 것 없는 작은 씨앗이나 죽은 듯 보였던 뿌리에서 아름다운 새싹들이 겨울의 동토를 뚫고 움을 트며 솟아납니다. 그 겨자씨만한 씨앗을 보고도 풍성한 과수원을 바라보는 생각을 하십시오. 순돌만한 떡임을 보고도 울창한 나무숲을 그려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원대한 미래를 설계하도록 도우시고 열매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와 지역사회 요구 부응하는 교회는 성장!

CT, "신의 미래" 출간후 젠킨스 교수의 지구촌 교회성장사례 설명 보도

2002년 필립 젠킨스 교수(Baylor University 역사학 석좌교수)는 "신의 미래"(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를 통해서 서구권 이외에서 급속하게 성장하는 기독교 현상들을 소개했다. 그는 새유일 현상들의 "문명의 마찰" 개념을 더욱 더 심도 있게 도입해 기독교의 성장이 북반구보다는 남반구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 모든 기독교

계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반응을 일으켰다.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최근 2014년 전국 포스퀘어교회 총회를 앞두고 젠킨스 교수와 인터뷰를 통해, "신의 미래" 출간 이후 12년이 지난 지구촌 교회 성장을 중심으로 대담을 나눴다(An Interview with Dr. Philip Jenkins, Distinguished Professor of History, on Global Christianity)

성경과 구약성경의 성경을 이해 하는데 있어 세계 교회들의 차이가 있는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평범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황하게 된다.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수 없다. 구약은 고대, 원시적인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우리에게도 관련이 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프리카 여러 지역들을 여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 아이모로 목사는 "알았다. 그러면 저 교회를 고용하기를 원하냐"고 회중에게 묻고, 바로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손을 들고 "고용하겠다"고 응답하면, 일어서있는 자 동자 준비공을 자리에 앉게 한다.

또한 그는 부채가 주는 악을 교인들에게 설교한다. 교인들 중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이사를 오게 되면, 절대로 크레딧 카드나 이들 회사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받지 말라고 권면한다. 그 이유는 경제적 기반없이 크레딧을 사용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번영의 복음에도 금

"십자가"와 "고난" 없는 번영복음... 긍정적 면도 있어 의료시설과 교회가 빈곤지역에 세워지면 교회성장 확실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의 삶에 구약이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단 교회는 번역하기에 힘들지만 레위기 읽는 것을 선호한다. 바로 자신들의 사회를 위해 쓰여졌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따라서 신약성경 읽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복음 전도의 견지에서, 만약에 내가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에게 "속죄론"과 같은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한 도전이 된다. 피의 제사와 같은 종교적 의식들이 정말 이상하고 외계에서 온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는 풍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왔기 때문에 "보혈이 바로 죄들을 속죄한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오래된 교회들과 새로운 교회들 사이에 새롭게 부상되고 있는 중요한 차이점들은 무엇인가?

바로 "치유"다. 남반구에서 새로 시작된 교회들이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받아들이는 치유는 단순한 신체적 부상이나 상처들에 대한 치유에서만이 아니라 온전한 총체적 치유로 영, 혼, 육 그리고 사회에까지 미치는 것이다. 서구권에서도 치유 개념이 받아들여져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사회의 물질주의적 병폐

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질병들을 고치는 것으로 실행되고 있다.

치유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하자면 우간다 교회의 예배가 적절하다. 예배를 통하여 한 여성 교인은 자신이 수년간 고생한 척추 질병에서 치유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그녀는 일어나서 병 고침에 대해 간증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치유를 간증하다보면 어느 예배가 다른 병들을 고침을 받았다는 간증들로 가득하다.

이러한 장면은 미국 교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치유 현상은 원래 개톨릭교회의 전통이었다. 바로 복음 강령하는 성사 도중에 치유들이 일어났었다. 치유를 강조하는 교회들에서는 교단적 분리들이 없고, 미국에서는 오순절이나 카리스마틱 전통을 강조한다.

지구촌 기독교에 '번영의 복음'이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현재 이 문제는 세계 전반에 걸쳐 가장 민감한 영역 중의 하나다. 번영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설교자들이나 교회들을 보면, 거의 사기에 가깝거나 속인다는 느낌과 함께 거의 범죄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얻게 된다. 그리고 번영의 복음을 설교한 목회자들이나 교회

가 "재정 스캔들"에 빠지는 것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번영의 복음을 쉽게 정죄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번영의 복음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너무 쉽게 유혹이 되며,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기독교만을 수용하게 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런던에서 사역하는 나이지리아 출신 매튜 아시모로 목사는 영국 전역에 다수의 위성 교회들이 있고, 번영의 복음 사역자라고 비판을 받는다. 그는 주일예배에서 5,000명 회중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실업이 가져다주는 죄에 대해서 선포하겠다. 이 자리에 현재 실업자가 있으면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일어나고, "어떠한 일이든 직장에서 일하기를 원하냐?"고 묻는다. "나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정적인 측면이 있다.

데이빗 해셀 그라브는 "역동적인 종교 운동들"(Dynamic Religious Movements)에서, 특정 종교적 운동이 갖는 성격이나 특성들이 바로 역동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했다. 따라서 지구촌 교회들에 어떠한 운동적 요소들이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인가?

신앙적인 요소에 "치유"를 접목시킨 현상에 많은 교회들이 합승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요구나 필요에 부응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50년 동안 지구촌에는 소위 '사람의 지각 변동'이라고 불릴 만큼 이민과 이주가 일어났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for L.A. and N.Y. offices.

Large advertisement for Midwest University, featuring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and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along with program details and contact information.



(1면에서 계속)

이 연습은 내 욕심, 이기주의적 마음, 남을 판단하는 모습 등을 죽이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이 돼보기도 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안에 사시는, 그러므로 내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듯이 교회와 다른 사람, 가족을 생각하고 섬기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희생하는 존재라 여기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것이다.

또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이다. 부활체험은 내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을 섬길 때 무엇 때문인가 아닌 내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다. 부활은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것을 입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기쁨, 능력, 소망으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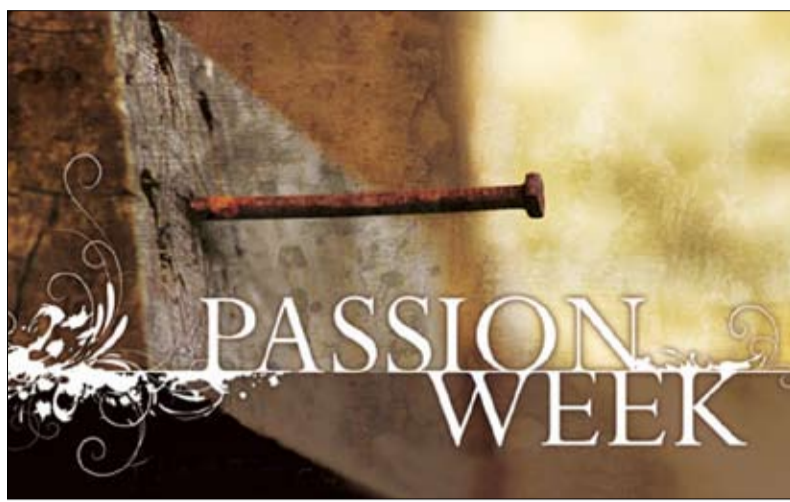
고난주간 교회가 나아가는 것은 고난을 초월하기보다 고난의 열매를 초월하면 한다. 고난에만 초점을 두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짐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는 무겁고 어두워 보이지만, 결국 부활로 이어졌다. 부활의 열매는 새로운 삶이다. 따라서 고난의 열매는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또한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한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김재영 교수

"19세기의 독일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그의 유명한 책 '기독교와 자본주의 발흥'에서 자본주의 시대 돌입과 함께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쇠창살에 갇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견을 밝혀 놓았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그렇다. 우리에게 교회는 존재하되 자유는 잃어버리고 있어버린 현재를 살아간다. 출애굽하기 전 노예 생활했던 이집트처럼 거대한 새로



운 이집트 문화 가운데서 오늘날의 하나님백성들은 자기 언어를 잊어버렸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당근과 채찍으로 그들은 일당에, 주당에, 월당에, 샐러리에, 목을 맨다. 빵과 포도주가 주어지면 허겁지겁 받아



먹는다. 오늘날 역시 하나님백성인 교회에서 잊혀지고 잃어버린 언어가 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언어다. 부활의 언어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던 그리스도는 희미해졌다. 그 사건의 의미도 소실되었다. 우리 앞에는 텔레비전과 컴퓨터 화면과 멀티비전에서 쏟아지는 제사장 같은 목회자들이 서 있고, 그들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마비시킨다. 양심을 깨우지 않으며 의식을 일깨우지 않으며 예속을 방지하며 예수가 아니라 거대 철장의 예수 가운데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어준다. 불안하고 불편한 자기 상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감정과 정신을 주물러준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은 매년 고난주간이 기념되고 있다. 혹 어떤 교회 전통은 고난주간을 포함시켜서 사순절도 기념한다. 나는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되살려 우리를 지금 당장 옥죄어오는 이집트의 요구, 물질문명의 요구, 제국의 질기며 급박하게 달려드는 위협과 대결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 대결은 시급하고 화급하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아주 전하게 떠올려야 한다. 어쩌면 웃을 짓고 재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쁨을 떠올리는 일은 우리 각자에게 맡겨졌다. 각자 자기 삶에서 결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은 우

리의 신앙공동체들이 결단해야 한다. 진짜 십자가의 언어, 진정한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되찾아서 자유의 단맛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주님의 노예로 봉사하고 섬기도록 하나님백성의 무리가 노력해야 한다.

이 일은 부르짖는데서 시작한다. 이집트의 예속으로부터의 해방이 그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서,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아뢰 하나님께서 들으심에서 시작했듯이, 고난주간에 부르짖자. 그리하여 대속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서 우리의 실존을 억누르는 현대 물질문명 이집트의 요구에 맞설을 놓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깊이 목상할 일이다. 십자가는 죽음이며 그 죽음은 죄의 죽음이며 생명의 열림이다. 그래서 영원의 창(窓)이 된다.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자. 그대들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부르짖을 때 그 일은 시작되리라.

신신목 교수

구 유에 누이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는 고난주간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으로써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를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의 참다운 의미이다. 우리 성도들은 1년 내내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살아



야 하지만 그런 신앙인의 정체성을 새로이 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 산다는 것은 첫째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데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둘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정욕을 못 박을 수가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라는 것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욕에 이끌려 살 뿐이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면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셋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대한 대답을 찾는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주님을 따라서 사랑과 희생을 삶을 사는데 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기신 길, 사랑의 희생과 섬김의 길이 참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한 모퉁이를 함께 지고 사는 삶, 그것이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는 삶이 아닐까?

신학자 라일은 "만일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기초임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시간 낭비를 한 것이다. 당신의 종교는 태양 없는 하늘이요, 태엽이나 추가 없는 시계며, 기름 없는 등불이다...나는 다시 말한다. 십자가가 없는 종교를 조심하라"고 했다. 이번 고난주간은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주간이 되면 어떨까? (박준호 기자)

실제로, 영국에는 성공회가 있고 광의적인 의미에서 보수적인 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영국 성공회 교구 안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들 교회들은 카리스마틱하며, 치유를 강조하며 새로운 유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로 브르튼의 삼삼위일체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로, 카리스마틱 교회임과 동시에 알파코스를 통해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소망 칼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병들어 죽게 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 받아 15년이나 생명을 연장 받게 되었다 (왕하20:1-7). 어느 이비인후과 의사가 어린 소녀를 마취시키지 않은 채 수술을 해야 했다. 의사는 자기 주머니에서 5센트짜리 동전을 꺼내어 소녀에게 주면서 "너를 약간 아프게 하려고 한다.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너는 이 동전을 잘 보고 손에 꼭 쥐고 있으며 내가 일하는 동안 내가 본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그러면 그다지 아프지 않을거야"라고 말했다. 훌륭히 수술을 끝내고 의사가 소녀에게 무엇을 보고 기억했느냐고 묻자 "In God We Trust(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대답했다. 그 동전에 그렇게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평안하고 아프지 않고 고통이 없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비록 시련과 역경을 만나고 고통과 슬픔을 당했어도 그것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오히려 더 큰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겨울이 지나고 3월의 강한 바람이 불어올 때 나뭇가지가 마구 흔들리는 모습은 보기에는 애처로울지언정, 그 강한 바람은 나무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 초봄의 강한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고 나무가 흔들려야 새잎을 내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땅 속의 뿌리로부터 위로 잘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 즉 뿌리로부터의 영양공급이겨우내 활동을 하지 않은 나무줄기를 통하여 나뭇가지의 새싹 부분까지 원활히 잘 올라가자면 바람에 흔들리는 운동 작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도들도 그와 같이 때로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사는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지금까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처럼 그것만 추구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다. 편안 생활만을 행복이라고 알고 지낸 사람의 일생에 인간으로서의 위대성이 있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인생길에서 거센 바람을 안 맞아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의지가 그 바람을 어떻게 해석하고 수용하고 처리하는가 하는 점이다. 실패나 고난 시련 역경 질병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르심이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신호이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 사랑의 팔 내미심이다.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119:67)라고 하였다. 지스레리는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고 하였다. 고난(영육의 괴로움과 어려움)은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생의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롭게 예비하신 교육과 훈련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 중에 누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쁨으로 감수하기 바란다. 고난이 크면 상급도 큰 것이다. 고난과 고통을 당하거든 인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드리라. 로마서에 보면 고통의 진화(進化, 일이 점점 발전되어감)를 말씀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연단 된 품격은 희망을 낳는다"(롬5:3-4). 환난 속에서도 감사하면 위대한 인내를 터득하게 되고 힘겨운 인내를 하면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더욱 연단되어 높은 신앙 인격에 도달한다. 그리고 연단을 쌓으면서도 계속 감사하면 불멸의 희망을 이루는 믿음의 승리가 되는 것이다.

(2면에서 계속)

시골이나 작은 마을에서 대도시로 이주했지만 복지나 교육, 건강을 챙겨줄만한 시설들은 없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이유로 이주나 이민을 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신앙공동체는 있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팬티코스탈 교회들이 그리고 중동에서는 근본주의적 무슬림 사원들이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사람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했다. 이것이 라틴아메리

카에서 오순절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 원인이다. 야고보서에 있는 것처럼 음식에서부터 의료지원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면서 복음을 전했다. 따라서 의료시설과 교회공동체가 가난한 지역에 의도적으로 세워지면 앞으로 20, 30, 40년이 지나면 교회성장은 이루어진다는 가정도 이루어질 정도이다.

세계의 서구권에는 34개의 산업

화가 이루어지고 민주주의가 시행되는 나라들이 있다. 그러나 선교 학자들은 이러한 나라들에서 뚜렷하게 교회 개척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서구권 교회 성장을 위한 실제적인 사례들은 없는가?

영국이나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 성장은 철저하게 기존의 교회와는 별개의 문제다. 한마디로, 영국이나 독일 고유 교회전통과는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2014년 봄학기 및 여름 집중강의

학교 소개

ITS는 현재 캘리포니아 LA근교 엘몬티(El Monte)에 자리하고 있는 신학교로서 32년 전에 세계선교를 비전으로 선교지 지도자들에게 신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 김익환 박사께서 LA 지역에 설립한 한인인 세운 신학교로서는 최초로 미국신학교협의회인 ATS의 정회원인 인준된 신학교입니다. 영어, 중국어, 한국어 프로그램 등 각 프로그램 공히 목회학 석사과정(M.Div), 신학 석사과정(Th.M), MA 석사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프로그램 소개

한국어 프로그램은 이민 사회에서의 이민자들과 이민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며 또한 해외한인선교사들의 역량을 구비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내 주요 교단과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오시는 유학생들에게 I-20를 발행합니다. 또한 학비는 저렴하며, 자격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며 우수한 학생에게는 학비 전액 면제도 제공합니다.

2014년 봄학기(3/31-6/13) 및 여름 집중강의

월: 리더십(Dr. Christina Kang), Senior Preaching(Director), 근대교회사(Dr. Katherine Ahn) 화: 기독교윤리(Dr. Edmund Rhee), 전지서(Dr. 김철원), 미션얼 교회(Director)

여름 집중강의

6월 16-20일 (월-금) 설교와목회 (Dr. 이연길) 6월30일-7월4일(월-금) 16-17세기 개혁주의신학 (Dr. 한병수) \* 입학 사정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청강 역시 가능합니다 (청강비 140불). \* 자세한 정보는 www.itsla.edu를 참고하시고, 전화문의는 626-448-0023.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3225 N. Tyler Ave., El Monte, CA 91731 총 장: Dr. James Lee 한국학부 Director: 김재영 목사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www.itsla.edu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하드리아누스 황제

로마에서 북동쪽으로 20km를 가면 산을 끼고 있는 유명한 도시가 티볼 리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가깝게 보일 때 오른쪽으로 하드리아누스(hadrianus 117-138) 황제의 별장跡跡이 나타납니다. 그 길을 따라 얼마쯤 가면 거대한 성채가 길을 막아섭니다. 둘러쳐있는 높은 담벼락이 위용을 자랑하고 그

내부에 대한 큰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별장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별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로 부와 권세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이런 것들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소유의 대단함을 자랑하려

고 하는 속물적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별장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력과 재원이 요구되었는지는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는 태평성대를 자랑했던 시절이었으니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양아버지이자 선대왕 트라야누스 황제의 후계자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양아버지 트라야누스 황제 역시 양아들로 들어갔는데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로마제국에 있어서 가장 찬란한 번성기는 양아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섯 황제를 오현제라고 역사가들은 칭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황제들이 모두 자식에 없었기에 제일 똑똑한 부하 중에서 양아들로 임명시켜 대권을 물려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로마의 역사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학자 황제로 잘 알려

진 아우렐리우스 때에 끊어지고 말았는데 그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딱서니 없는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줌으로 국가의 운명은 더 이상 흥기하지 못하고 내리막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지도자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고로 지도자로 세우는 일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아주 중요하긴 합니다.

하드리아누스는 황제로서는 드물게 문화에 탁월한 식견과 재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한 동안 제국 전역을 순례하였는데 이집트에 서 많은 것을 보고 자신의 별장을 장식하는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는 군사나 정치적으로도 탁월했는데 로마의 방위선이 너무 길고 그에 대한 방위비의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위선의 규모를 줄이고자 시도하였으나 그런 일은 제

국적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였기에 원로원의 반대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장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미국의 정세 같다고나 할까요?

그는 인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전선을 순례하는 여간에 병사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병사와 함께 행군을 하기도 하는 소탈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병사들의 환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우상숭배를 강요하였습니까?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항전한 유대인들과 3년 동안을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 후 유대의 이름은 말살되었고 대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자유로운 남녀관계 속에서 남색에 깊이 빠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가차 없이 처벌하되, 체포하여 확인한 후 개종을 약속하는 자들은 살려주라고 했습니다. 총독들의 보고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신앙을 부인하고 개종을 약속하여 처벌을 면했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자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압박으로 로마의 주교 텔레스 포루스(Teles Phorus 125-136)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황제는 말년에 심한 고통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살을 여러 번 시도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사도바울이 죄수로 로마로 가기 위해 하신한 보디움(현 Pozzuoli)에서 가까운 별장 바이아이(Baiae)에서 62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훌륭한 황제였으나 기독교를 핍박한 것은 옥에 티 같아됩니다.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그는 잘못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 푸 / 른 / 초 / 장

조성근 목사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강화-LA 담임)



본문의 서두가 '이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것으로 볼 때 앞의 11장과 연관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장으로서 구약시대의 인물들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와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며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섰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증명한 믿음의 가치를 통해 우리도 동참하는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로서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주자의 마음에 결단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처음 출발은 쉬운 듯해도 굳은 결단없는 완주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결단이란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히12:1). 죄에 대한 청

결을 핏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단호하게 뿌리쳐야 할 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쁜대로의 기도생활에도 유익이 안 됩니다. 회개와 결단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삶을 끈고하게 합니다. 벗어버리면 시원합니다. 던져버리면 가볍습니다. 멋진 신앙을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죄의 특징은 무겁습니다. 삶을 짓누르며 기쁨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신음소리와 탄식소리에 간

려갈 길을 다간 후 면류관 쓰기를 원하는 마음이 사실이라면 여러 이유로 주저한 것들에 대해 결단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뿌리쳐야 할 죄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쁜대로의 기도생활에도 유익이 안 됩니다. 회개와 결단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고 삶을 끈고하게 합니다. 벗어버리면 시원합니다. 던져버리면 가볍습니다. 멋진 신앙을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벗어버리는 겁니다.

둘째,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2절)

멋진 신앙생활의 다짐과는 달리 흔들리는 대부분의 이유는 뜻사람의 시선 때문입니다. 경주자가 끝

시하지 않는다면 항방 없이 뛰어가 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력을 다하는 듯해도 그의 수고는 헛되고, 뜨거운 열심은 있지만 기대했던 소득은 없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면 그 어떤 우리의 헌신도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앙의 기준을 주님께 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아무리 달콤한 말에도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적인 합리적 제안에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칭찬의 소리가 있어도 믿음의 경주자에게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며 혼란케 하는 것들이 늘어나도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시선을 뺏기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

누구도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기도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라도 자신했던 신앙이 위협을 받아 지진이 흔들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갈등하는 모든 것들과 타협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게 마련이지만 환경보다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때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주어지고 즐거움으로 전진할 의욕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먼저 피곤함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고난 중에도 누군가를 떠올리면 어려움을 이길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고된 일과 중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피곤함을 잊게 되듯이 구속의 주님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힘이 솟아납니다. 지친 영혼이 생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확신에 넘쳤던 처음 모습을 지켜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정오의 빛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도 문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배망 끝도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잘 참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총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무능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뛰어난 능력을 의미합니다. 역울함의 분노는 당연할 수 있지만 분노를 참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 다다를 때까지 (히브리서 12장 1-3절)

산 없이는 신앙생활의 수고는 무의미합니다.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불신, 교만, 내태함과 같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허울 좋은 직분으로 만족하는 여러사람보다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과거의 악습을 단절하고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희게 합니다. 죄는 손뼉처럼 들어와 이제는 그의 주인노릇하려고 합니다. 죄의 요구를 따라 끌려다니는 나약한 사람이 됩니다. 남다른 뜻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를 방해하는 죄의 문제를 청산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5:29-30) 믿음의 경주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과감한 작오와 결단이 필요하며, 운동선수 가 경기에 앞서 경기를 위해 불필요한 것을 주저 없이 내치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에 적용해야 할 일입니다. 훗날 달

라인(Goal line)을 바라보고 뛰어오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오 해야 합니다. '믿음의 중요'라는 말은 주님께서 믿음의 창시자시 라는 것이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이라는 말은 믿음의 완성자가 주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을 완성자 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체로서 믿음을 갖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믿음을 더 깊어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하고 논리보다 진리를 따라가는 모습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늘 주의 것 을 찾으십시오(골3:2) 시선을 주님께 두 면 세상의 강렬한 저항이나 탈출한 유혹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셋째,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3절)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합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첫째,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1절)

##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뉴욕 새교회는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 I. 지원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개혁교회 교단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 2.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신 분
-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미국 체류에 걸림 사유가 없는 분

#### II. 제출 서류

- 1. 이력서 (소정 양식)
- 2. 자기 소개서 (소정 양식)
- 3. 목회 계획서 (소정 양식)
-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5. 최근 설교 DVD (2개) 나 또는 설교를 들을수 있는 home page 주소

####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31일

#### IV. 제출처

Pastoral Search Committee,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1 Willow Street, Roslyn Heights, NY 11577  
• 문의: 청빙위원장 (황달연 장로) 917-576-3921, dalehwang100@gmail.com

#### V. 기타

- 1. 서류는 보완유지 및 분실예방을 위하여 등기 우편 (FedEx, UPS) 으로부터 발송
-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3.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4. 소정 양식은 뉴욕 새교회의 home page (www.newchurchny.org) 에서 볼수 있음.

2014년 3월 28일

뉴욕 새교회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

### 영생 양식 교회

담임: 김병도 목사(Rev. Peter B. Kim)

## 영생만나 ACADEMY

교회가 양식집인데도 정치인은 표밭으로, 사업가는 시장으로, 예술인은 무대로, 종교인은 기업체로, 미신가는 복권집으로 잘못 알고 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고 하신다(요6:27). "충성되고 지혜인은 종이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다(마24:45)

#### 주일예배 모임

예배시간: 매주일 오후 2시  
예배장소: 3407 W. 6th St. #807 L.A. 90020

#### 영생만나 Academy

강의시간: 매 화요일 오후 2시(영어), 6시(한어)  
강의과목: HELP. Course(초청양식), HELM. Course(결양식), HELA. Course(법양식), HELT. Course(단단양식), HELK. Course(감침만나)  
문 의:(213)840-3725, (201)674-6909



영생 양식집 선교회  
(The House of Eternal Food)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오바마케어의 대안책(상)

문제 많은 오바마케어 대신 더 좋아진 메디컬(메디케이드)로!

2014년 3월 말까지 오바마케어 보험에 들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신앙에 위반되는 오바마케어에 들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안 들러니 어마한 벌금을 매년 계속 물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염려하고 아직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바마케어에 대한 대안책을 간단히 두 가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오바마케어에 드신 분들도 다시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갈등과 거부반응들은 2010년 오바마케어가 합법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갈등은 더 더욱 심화되어 작년 2013년에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연방

마치 "빛 좋은 개살구"처럼 되 버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은 점점 더 높아질 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

오바마케어에 들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메디컬은 소득에 따라 연방빈곤선이 정해지고, 연방빈곤선 범주에 따라 연방보조 페센트지(percentage)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명의 가족의 한달 소득이 2,480달러이면 연방정부 빈곤선133-150% 범주에 해당됩니다. 133에서 150%에 해당한다는 것은 연방정부 보조를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이 4%라는 것인데, 개인이 내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면 99달러 이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가족이 만일 실버(Silver)건강보험을 사고자 하면 예를 들어, 병원비가 총 1,200달러가 나왔다면 99달러만 내면 연방정부에서 그 나머지 1,101달러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에도 못 끼고, 그렇다고 충분한 수입(income)도 없었던 중간에 끼어있던 가정이나 개인들은 캘리포

## 연방빈곤선 낮아져 메디컬(메디케이드) 혜택 확장 한인소셜워커나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문의 신청

정부 업무가 마비(Shutdown) 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보 없는 대립 속에서 예산안이 결정되지 않아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 외에도 오바마케어의 확실치 않은 불안정한 제도들과 신앙인들의 믿음을 무시한 채로 이루어진 의료 행정으로 인해 불안해진 시민들의 마음도 배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Obama HealthCare)는 비록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모든 국민이 연령·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동등한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들을 소개하였고 지금도 소개하고 있으나, 그런 화려한 약속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던 사람들마저 정부와 오바마에게 그들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바마케어 대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그 첫 번째 대안책을 나눕니다.

메디컬 (Medical) / 메디케이드 (Medicaid)

메디컬은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부르는 명칭으로, 본래는 메디케이드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서는 메디케이드로 알려져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컬"(Medical)로 통합니다.

메디컬은 오바마케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연방정부 보조 프로그램으로서 1)크리스천들의 신앙에 위반되지 않으며 2)미국 연방정부 보조 의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메디케이드/메디컬 가입대상 확산

메디컬(Medical)은 그동안 장애가 있거나, 연간 소득이 연방빈곤선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무료 또는 약간의 가격으로 제공되는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이었지만 2014년 1월부터는 메디컬 연방빈곤선 기준을 138%에서 400%까지 확장시켰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장애인뿐 아니라 개인 소득이 연방빈곤선 기준의 138%에서 400% 사이에 해당하면 가족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도 메디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메디컬 기본 의료보험보다 좀더 좋은 의료보험을 들고 싶으신 분들은 메디컬 상품 안에서 약간의 비용을 내고 좀더 품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니아 메디컬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높아진 것입니다.

나와 또는 가족이 메디컬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보거나 하면 각 지역에 있는 한인 소셜워커들을 찾아보거나 또는 '커버드 캘리포니아'(Covered California)라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기관은 오바마케어 가입을 돕는 오바마케어 정부기관입니다. 하지만 메디컬을 가입하고자 할 때 같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Covered California가 메디컬 가입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는 일반인들이 오바마케어 대신에 가입할 수 있는, 오바마케어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하되 품질은 더 좋은 의료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개척교회를 섬기는 권사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제일 우선순위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목회자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까요?  
토크스에서 권 사

A: 지난 8일 말레이시아 여객기 MH370가 중국인 153명 인도네시아인 38명을 포함한 승객 227명을 태우고 중국베이징으로 가기위해 새벽 0시41분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날았는데 베이징 공항에 도착 않고 실종되었습니다. 현재 조사된 바에 의하면 실종기의 조종사인 기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LA 한국일보를 보면 "실종기 기장 제 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기사를 실렸습니다. 그 조종사의 친구인 동료 조종사는 "실종기 기장이 가정문제 즉 아내로부터 더 이상 같이 못산다는 결별을 통보받고 가정문제로 비관 "조종할 정신이 전

### 목회자의 성숙한 인품과 균형 감각위해 기도

혀 안된 상태에서 시뮬레이터가 아닌 자기가 직접 조종하여 행로를 바꾸어 인도양으로 자살 비행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기장이 227명의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교회든지 사회든지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생명을 한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온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날다 추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가 교회라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정현 목사가 쓴 "잠들지 않는 사역자"란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탁월한 식견과 논리로 비전을 제시하는 기업 컨설턴트인 피터 드러커는 "목회는 미국에서 현존하는 직업 중에 가장 힘든 세 가지 직업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가장 위험한 직업 3가지로 "대통령, 목회자의 사모 그리고 목회자"를 들었습니다.

14세기의 목회자였던 존 위클리프는 "목회직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목회자는 "거룩한 인격과 온전한 가르침"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인격"이란 목회자는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는 "모든 죄와 유혹에서 자신을 절제하며 지켜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절제하는 삶을 말합니다. "온전한 가르침"은 목회자가 선지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성도들을 도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목회자가 실제로 자신을 지키고 온전히 양무리를 말씀으로 가르치며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이고 투쟁입니다.

첫째, 그 분의 성숙한 성품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그 개인의 목회자적인 설교의 능력이나 은사, 사람을 끄는 리더십 이전에 그 사람의 성품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품이 착해야 합니다. 사역의 능력보다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 성경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원만한 인간관계와 인격을 가진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목회자는 올바른 신학적 바탕에 은혜 체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튼튼해야 하고 은혜 체험을 많이 해서 다른 교인들의 영적 체험을 이해하고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성이 있으면서도 영성이 깊은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하고 로컬하면서도 글로벌한 세계적인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목회하며 한 마리의 양을 귀하게 생각하면서도 전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을 볼 줄 아는 글로벌 즉 선교적인 안목과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아가페 선교침례 교회 담임목사 청빙

- 자 격
  - 1). 학력 : 일반대학교 및 정규신학 대학원(M.Div)졸업자
  - 2). 경력 : 목사 안수후 목회 경력 또는 선교사 경력 소유자
  - 3). 특기 : 한. 영 이중언어 가능자 우대
- 제출서류
  - 1). 자필 이력서(3개월이내 촬영한 본인 사진 첨부) 1부
  - 2). 본인 소개서(성장배경, 가족사항, 신앙관, 신앙간증 포함) 1부
  - 3). 사모 소개서 1부
  - 4). 목회 철학, 계획서 및 비전 1부
  - 5). 존경하는 목사님 또는 신학교수 2분의 추천서 각 1부
  - 6). 학위증명서 각 1부 - 2차 서류제출
  - 7). 건강진단서(사모포함)-2차 서류제출
- 제출기한 2014년 4월 30일
- 제 출 처 Agape Mission Baptist Church  
Attn : 임시 담임목사 오후렌세스 원로목사/청빙위원회  
1635-A Palolo Avenue  
Honolulu, Hawaii 96816  
Email: caseyohhi@hotmail.com
- 기 타
  - 1).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결과는 개별 통지함.
  - 2). 지원관련문의는 교회: 808-735-0011

### 아가페 선교침례 교회

임시 담임목사 오후렌세스 원로목사/청빙위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차드의 하제라이(HADJERAY)



“하제라이”란 말은 “바위 또는 산악의”란 뜻인데, 이것은 차드 중남부의 하제라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산악종족집단을 통칭하는 말이다.

리트족(Dangaleat) 등이 포함된다. 이 종족들 모두 차드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켈가족은 사라-봉고-바귀리미 언어(Sara-Bongo-Baguirimi)를 사용한다.

에 대한 1960년의 반란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삶의 모습 하제라이족은 주로 농부들로 이 지역의 바위투성이 땅을 개간했다. 하지만 일부는 도시로 이주했으며, 공사장이나 정부에서 일했다. 주요 작물 수수와 다양한 과일 및 채소, 면화, 오크라, 콩, 옥수수 등도 재배한다.

씨족이 여러 있으며 그 씨족들은 서로 이웃이다. 촌락은 촌락이 다스리며 주로 마을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든 촌락에는 또한 “땅의 수장(chief of the land)”이 있는데 그가 마을의 종교적 권력을 행사한다.

교가 있지만 교사는 충분하지 않은 편이며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다. 학교 외에 현대화의 물결들은 등유 램프와 플라스틱이 각 단마다 사용되고 있다. 단파라디오와 디지털시계도 드물지는 않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제라이 지역의 부족들은 보다 많은 교육의 기회와 적절한 보건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아마도 크리스천 교사와 의료사역자들이 될 것 같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항소법원,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지지 판결

미국 항소법원이 강력한 규제에 논란을 부른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텍사스 지역 언론은 28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이 여성(임부)의 건강을 들어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라 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는 여성의 낙태 결정권을 가로막아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해 10월 연방 지법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릭 페리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주 여성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좋은 뉴스”라고 환영했지만 이 법을 반대해 온 ‘계획(출산)부모’는 단재는 “여성의 낙태를 막는 끔찍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웠다.

보수와 공화당 출신 인사들이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텍사스 주는 지난해 여름 여성의 낙태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규제하는 엄격한 낙태 금지 법안을 제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텍사스주 여성은 원하던, 원치 않던 임신 20주 이후에는 낙태할 수 없다. 또 의사가 낙태 유도제를 처방할 수 없도록 해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한편 낙태 수술은 외과 병원 시설에서만 이뤄지도록 했다.

이 법안이 공표된 이후 낙태 시술 클리닉 19곳이 문을 닫았고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미국 대법원이 1973년 낙태를 합법화한 이래 40년 만에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등장하자 지역사회는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다.

오는 11월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주 상원의원 웬디 데이비스는 지난해 의회에서 12시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이법의 부당성을 강조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공화당 출신으로 데이비스와 주지사 선거에서 격돌하는 그렉 에보트 전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낙태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낙태 옹호 단체들은 이 문제를 경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연방 대법원의 진보 성향

대법관 4명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4명 이상이 심리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월드비전, 동성결혼자 입사허용 이틀만에 취소

미국 월드비전이 동성결혼한 기독교인들의 입사를 허용키로 한 결정을 이틀만인 지난 26일 취소했다. 미 월드비전은 후원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는 성경적 결혼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서 동시에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믿는다”며 “이성 결혼만을 허용한 직원 규범을 삭제키로 했던 결정이 혼란을 초래해 용서를 구하며 이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미 월드비전이 동성결혼한 이들의 입사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힌 24일 이후 미국 오순절교단이 소속 교인들에게 후원 중단을 권고했고, 실제로 2000명 이상이 후원을 취소하는 등 반발이 확산됐다. 리처드 스티븐스 미 월드비전 회장은 기자들을 만나 “우리의 결정이 교회의 연합보다는 분열을 초래해 마음 아프다”며 사과했다.

미 월드비전은 교회와 후원자들의 권고를 수용해 입장을 반복했지만 선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가 확산되고 있어 기독교단체들의 고민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할머니 간절한 기도 마약깎음 스포츠 스타로...”

미국의 프로 미식축구 선수 제이슨 아반트(31)가 최근 미 기독교방송 CBN과 인터뷰에서 “한때 갱단에 소속돼 마약을 팔았지만 할머니의 기도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아반트는 2006년 프로 미식축구리그(NFL)의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입단해 공격 포지션에서 활약 중인 정성급 선수다.

그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친척 대부분이 마약 갱단과 연관된 일을 했다. 그는 중학교 시절부터 마약을 팔았다. 할머니는 손자를 데리고 교회에 나갔고, “주여, 이 어린 양을 다른 길로 인도하십시오. 그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라며 쉬지 않고 기도했다.

할머니는 스포츠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아반트를 미식축구팀이 있는 학교로 전학시켰다. 아반트는 선수로 된 지 1년 만에 지역 최고의 선수로 거듭났고, 실력을 인정받아 2003년 미식축구 명문인 미시간 대학에 진학했다. 입학한 첫해, 벤치를 지키는 날이 많아지면서 마음을 풀고 있을 때, 아반트는 성령임재를 경험했다. 그해 5월 4일 주일예배 시간이었다.

그는 “마약을 팔다 총격을 받은 적이 많았지만 누구나 상한 적이 없고 보잘 것 없는 제가 미식축구 선수가 된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반트의 사연을 접한 미국 네티즌들은 “할머니의 헌신과 성령의 힘이 기적을 만들었다”며 감동했다.

‘사형선고 기록청년 구하라’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파키스탄 기록 청년을 살리기 위해 파키스탄 정계와 국제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미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파키스탄 인민당과 PTI 등 야당은 지난 28일 파키스탄 의회에 사한 마시흐(27)의 사형선고를 강력하게 항의했다. 마시흐는 지난해 3월 친구와 말싸움을 하다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피소돼 27일 법원에서 사형과 벌금 20만 루피(약 2만달러)를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의 데이비드 그리피스 아시아태평양 본부장은 “정의를 우습게 여긴 판결”이라고 혼평하며 마시흐를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상대측 증언만 증거로 채택되는 등 판결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기반 법률 구조기관 CLAAS는 마시흐 판결에 대해 즉각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시르 사에드 CLAAS 본부장은 “신성모독법은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교회와 기독교 마을을 공격하는데 악용되고 있다”며 이

로 많은 무고한 기독교인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우려했다. 정계와 시민단체가 ‘마시흐 사건’에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된다. 이슬람국가인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정치인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법 위반으로 실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없지만 기소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마시흐 사건’이 있은 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이 모여 사는 마을로 몰려가 주택 150여가구를 불태우기도 했다. 그러나 마시흐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판결이 공정한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한국목회자 4명중 3명 “투잡에 찬성”

한국교회 목회자 4명 중 3명은 이른바 목사의 ‘투잡(two job)’을 갖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월 월간 목회와신학이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현지 목회자 9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목회자 이중직에 대한 찬반’에 대해 찬성 의견(적극 찬성 포함)이 73.9%로 나타났다. 반대(적극 반대 포함)는 26.1%였다.

이중직에 대한 연령대별 찬성률은 20대가 92.3%, 30대 77.6%, 50대 69.4%, 60대 60% 등 연령이 낮을수록 이중직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사례비가 적을수록 이중직에 나서는 목회자가 많았다. 사례비가 80만원 미만인 경우, 이중직 참여 비율은 62.7%였다. 80만~120만원 40.2%, 120만~180만원은 27%였다.

특히 교회 사역 외에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는 ‘투잡’ 목회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유형으로는 신학교 교수 및 학원 강사 등 교육 분야가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르바이트(일용직 포함)가 19.5%, 사회복지 분야가 9.0% 등의 순이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5월 본교 강의안내

May 12-16(5월 12 -16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om Stallter

May 19-23(5월 19-23일) DI 8280 Methods of Social Research(사회조사방법론)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PM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신학교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신학교학 박사과정(D.Miss.)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졸업식 리허설(Graduation Rehearsal)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오전 8시 30분
○ 장소: 졸업식 장소 (졸업예정자는 전원 참석해야 하며 정장차림을 해야 함)

총장주관 졸업만찬(President's Luncheon)

○ 일시: 2014년 5월 9일(금) 12:00-1:30pm
○ 장소: 웨스트민스터 홀(Westminster Hall)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26)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정치

카이퍼는 정치의 개혁자이다(A Reformer in Politics). 그런데 카이퍼의 정치철학 핵심은 바로 반혁명당의 원리이다. 반혁명의 원리는 곧 성경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카이퍼는 반혁명 당수와 오랜 세월 하원의원, 상원의원 수상을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반혁명의 원리를 주장했다.

카이퍼가 쓴 대작 가운데는 그의 정치기조를 설명한 “우리들의 계획”(Ons Program)이 있지만 그의 만년에 집필한 “반혁명 정치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이 있다. 이 책에는 카이퍼가 기독교 정치가로서의 확고한 정치철학이 담겨져 있다. 물론 이 책은 오래 동안 De Heraut지와 De Standaard지에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개혁주의 성도들을 계몽하고 지도하던 글을 모은 것이다. 이 책도 따지고 보면 카이퍼의 칼빈주의 사상을 구체화시킨 내용이었다.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Pro Rege) 그리스도인들의 소명과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영적

주권 사상을 주장했다. 본래 반혁명의 원리는 21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카이퍼는 이것을 해설하면서 방대한 저서를 만들었다. 그것은 정치가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중들에게 반혁명의 원리를

이 세상에 유포하러 건설하려는 사상이었다. 그것은 인간 자신을 우상화 할 뿐 아니라 이런 인본주의 세계관이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등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이런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을 때였다. 그때 흐룬은 한 성경연구 모임에 참석하게 된다. 그때 지도자는 빌렘 빌더다익(Willem Bilderdijk)과 아이삭 다고스타(Issac Dacosta)를 만나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철저한 역사적 칼빈주의자였다. 그들이 인도하는 성경연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체적 삶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 대답은 시편119:105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니이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 역사학도로서 예민한 시 대감각을 가졌던 흐룬은 여기서부터 불란서혁명(프랑스혁명)은 인본주의운동이므로 다시 16세기의 요한 칼빈의 신학과 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것

의 모든 영역에 관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세우고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강연과 글을 통해서 기독교 수호만을 주장하는 보수주의나 신학적 자유주의를 아울러 비판하였다. 카이퍼는 적어도 반세기 후를 내다 보면서 개혁주의 정치원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했다. 카이퍼는 일상의 사건들 배후에 있는 종교개혁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었다.

1872년 4월1일 De Standaard지의 첫번 논설에서 카이퍼는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으로 할 때 국민적 실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웅변적으로 주장했다. 성경은 사람

이므로 이것을 정리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우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반혁명의 원리는 화란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전통은 우리 시대에 합당한 형식으로 항상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의 정치철학은 반혁명의 원리에 체계화되어 있는데 그 원리들 중에 몇 가지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치를 개혁하고 민족적 양심으로 독재에 맞서 싸우려면 개혁주의신앙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주의사상은 옛것을 사수하고 기독교를 주장하는 수구적인 발상이 아니고, 언제나 성경적이며 진취적이어야 할 것을 말했다. 1조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주권적 권위의 원천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이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 진원지를 발견하게 된다. 1813년 화란의 독립과 국가의 재건과 화란 헌법제정 당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력이 절정에 달해 있었던 오렌지 왕가의 주권(Souveriniteit van Oranje)이 든든히 서 있었을 때만해도 인민주권론은 감히 위세를 떨칠 수 없었다”라고 했다.

둘째로, 반혁명의 원리는, 종교적으로 주권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이 문맥에서 하나님은 오렌지 왕가의 경우처럼 정치적 주권을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합법적인 지도자에게 위임했다는 뜻이다. 이는 로마서 13장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16면으로 계속)

## 정당정책 해설집 “우리들의 계획”에서 칼빈주의사상의 정치원리 밝혀 주권적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 성경 기초...제도적 종교의 형평성 언급

일깨우기 위함이었다. 카이퍼는 성경의 본질적인 원리들과 인본주의의 본질적인 원리들 사이에는 극명하게 다른 대립(Antithesis)이 있음을 지적했다.

즉 이것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세계관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즉 하나님중심사상 곧 칼빈주의사상과 인본주의사상은 피할 수 없는 대립관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즉 인본주의적 운동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불란서혁명운동이며, 이는 역사에서 성경적 원리와 하나님을 배제 하고 인간만이 스스로 주인자이고 인간의 마음먹기에 따

를 깨닫는다. 그래서 흐룬은 인간 전적부패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리고 반혁명운동의 기수가 되었다. 하지만 흐룬의 사상운동도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역동적이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이 되었다.

카이퍼는 흐룬에게서 물려받은 반혁명의 원리를 정치에 응용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다. 카이퍼는 흐룬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개인의 견견생활이나 내면적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삶

을 깨닫는다. 그래서 흐룬은 인간 전적부패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힘있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 살기로 했다. 그리고 반혁명운동의 기수가 되었다. 하지만 흐룬의 사상운동도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와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역동적이고 전국적이고 세계적이 되었다.

카이퍼는 흐룬에게서 물려받은 반혁명의 원리를 정치에 응용하고 발전시키고자 했다. 카이퍼는 흐룬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개인의 견견생활이나 내면적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이 삶

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시켜주는 안경 역할을 하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창조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안내자가 된다고 함으로써 요한 칼빈과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기독교 정치가로서의 아브라함 카이퍼는 계시된 성경으로 하여금 그의 시대의 문제에 해답을 얻도록 체계화 된 원리를 주장했다. 결국 성경만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이 반혁명의 원리이다. 칼빈주의 정치원리 곧 반혁명의 원리는 21개 조항이지만 처음 5개 조항까지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

## 가정사역 칼럼



### 자녀의 게임 중독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9학년이 올라가는 남자아이들 둔 엄마입니다. 인터넷 게임 때문에 밟고 당기느라 매일 전쟁입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의 통제 하에 게임하는 시간을 지켰는데, 이제는 아이가 반항하는 힘도 너무 세고 저도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로 폭력적인 게임을 하다보니 아이의 성격도 과격해지는 것 같고, 많은 시간을 하니 자연스럽게 공부하고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게임 생각 외에는 안하는 아이 같아요. 인터넷을 끊어버릴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 아이가 밖으로 나

돌까봐 걱정이 되어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독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아이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며 계획하는 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위기의 심대를 둔 부모로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군요. 자녀들의 세대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대중매체의 영향을 부모들보다 많이 받고 있기에 그들의 생각과 의식은 부모의 세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 영향으로 부모는 독단에 빠지기 쉽고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어느 특

정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중 일부는 사회로부터 격리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중적인 기준을 세우기도 합니다.(예: 집에서는 허용이 안되지만, 친구 집에서는 허용됨)

가끔 부모들이 이런 저런 통제를 시도해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고 깨닫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쉬운 편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차 독립적이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건강한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심대에 들어온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어떤 행동에 대해 그들이 듣고, 보고, 읽는 모든 것에 비평적 시야를 갖

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컴퓨터에 익숙해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폐단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는 다른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곧 가정 내의 대화가 방해 받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은 마약은 아니지만,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빠진 게임이나 포르노 사진들은 묘한 매력 있어서 계속하여 방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수십만 달러의 제작비, 전위 예술적인 처리를 통해, 자녀들의 관심과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건전하고 반듯하게 생각되던 개념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초와 그리스도인들이 내세우는 모든 윤리관도 쉽게 뒤엎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첫째 ‘점수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임

을 했다면 그 게임에 대해 아이들에게 “1점부터 10점까지 있는데 몇 점이나 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그리고 “난 6점을 주었는데 넌 9점을 주었어?” “왜 9점을 주었는지 이야기 해줄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십시오. 또 다르게 아이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포르노 사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니?” “몇 점...?”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할 지 의견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교훈이라도 들 어있었니?”라고 묻고 “만약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니?”라고 물어보십시오. “아한 사진의 주인공들의 삶이 행복 할 것 같으니?” “이런 주제와 관련된 성경구절은 어떤 구절이 될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으로 너는 “그 게임의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니?”, “또 다시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결과는 자녀들 로 하여금 로마서 12:1, 2절의 말씀 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분명한 가치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중독이나 대중매체에 무분별하게 접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홀로 외톨이로 남아있 으며,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낮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요일1:9)에 근거하여 죄책감을 처리하여주고, 좋은 친구관계를 만들어가며, 봉사나 선교 활동들을 통해 자신이 누군가를 도우며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취미에 따라 물고기나 애완동물을 키우며 책임감을 갖도록 할 수도 있고, 꽃이나 식물들을 돌보며 정서를 순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 담임목사청빙

San Francisco 근처에 위치한 콩코드 침례교회는 담임목사님은퇴를 앞두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1. 미 남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미국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분(M.Div)
2. 남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가입 가능하신 분
3. 타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이신 경우 미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합니다.
4. 목회경력10년 이상이신분 (담임목사경력 3년 이상 포함)
5. 영어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
6.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 제출서류

1. 본인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2.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본인 및 사모님(신앙간증, 사회경력, 사역경험, 목회비전)
4. 추천서 2부(동봉)
5. 최근 6개월 내 설교 DVD 2편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교회 웹사이트 www.ckbch.org 에서 다운받으세요.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2014년 6월 30일  
제출처: P.O.Box 3073 San Ramon CA 94583 Att. HONG KI HAK  
문의: 청빙위원장 홍기학 안수집사(ckbch2014@yahoo.com)

Concord Korean Baptist Church  
5000 Hiller Lane, Martinez CA 94553 / www.ckbch.org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82. 창조론의 기초(32) 하나님의 실수?

왜 하나님은 쓸 데 없는 맹장을 만들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참 많았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 진화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든 경우가. 맹장 뿐 아니라, 진화론은 사람 몸에 쓸 데 없는 기관들이 180여 가지나 된다고 주장했었다. 지금은 우리 몸에 쓸 데 없는 기관이 있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거의 없지만 진화론이 뿌리 놓은 씨앗들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신체와 환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생명체보다 더 정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본 사람은 없다.

**맹장**  
초식동물들은 맹장이 길고 여기에는 섬유소(cellulose)를 분해하는 박테리아들을 담고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육식동물들의 경우에는 맹장이 짧고 별

어 대표적인 흔적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뼈에는 여러 가지 근육들, 힘줄들, 인대들이 붙어 있어 아주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배변에 필요한 근육들이 여기에 붙어있어 항문의 위치를 정해주고 항문을 열거나 닫을 수 있게 하는 근육이 여기에 붙어있다. 또 꼬리뼈는 걸을 때 필요한 근육이 붙어있을 뿐 아니라 앉을 때 삼각대의 한 다리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 진화과정에서 점점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꼬리뼈 없이 살게 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사랑니**  
전혀 소용도 없는 사랑니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진화론은 소화계가 아직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던 인류의 선조들은 소화되기 어려운 섬유소 등을 분쇄하느라 사랑니를 잘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경우에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술한 디자인이라고,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들이 채소와 과일만 먹고 살도록 하셨다. 이때 사랑니는 완전

하지만 과학지식이 늘어나면서 다른 흔적기관과 마찬가지로 DNA에서도 상황이 달라졌다. 눈에 보이게 표현되지 않는 98%의 정보 속에는 과학기술자들의 보배(돈)가 담겨 있다. 최근 생명공학 관련 기업들의 관심은 2%가 아니라 오히려 98%의 Junk DNA라고 불렀던 곳에 집중되고 있다. 각종 질병에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진화론자들은 흔적기관이란 명칭을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연의 산물로 바꾸려고 한다. 맹장처럼 뚜렷한 기능을 보이지 않는 기관을 예로 들어, 사랑니 진화되었기 때문에 몸의 어떤 기능들은 최상의 기능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비아냥거리는 말로 창조자가 있다 해도 그는 무능한 창조자며, 창조물들은 잘못된 디자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최상의 디자인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말이다.

등산이나 낚시하러 갈 때 유용한 다용도 칼이 요리할 때는 부엌에 있는 요리전용 칼에 비교할 수 없이 기능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다용도 칼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요리할 때만 쓰려고

#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선물보다 하나님

“땅의 기름짐과 하늘 이슬에서 먹고 칼을 의지하여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고, 매임을 받을 때 멍에를 목에서 떨쳐버리겠다”(창27: 39-40).

“참으로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의 글에서는 장자로 태어났는데도 팔죽 한 그릇에 팔아넘길 정도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는데도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힘을 다해 추구함으로 허락해주십니다. 아무리 수고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히려 코가 깨질 수가 있고 수고한다 해서 부와 자손 번창이 따라온다는 보장은 없지요. 허나 죽어라 수고는 한 결과로 번창해 해주시는 축복이 예사에게 주어짐은 그대도 번창하는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적인 복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으니 주어졌다고 해도 그의 가치를 몰랐을 터이니 뭘 놓쳤는지조차 모른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나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한 인생 나름대로는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허나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기에 결국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이스라엘의 발목잡고 괴롭히는 마귀 노릇하는 불신자들이 됩니다. 나의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낼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길을 가게 될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 되시어 주관해주시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마음을 나누고 동행하는 그런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인데도 그 마음이 동과 서입니다. 비록 마음이 좁은 여자같이 머리 굴리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화시키는 손길로 인해 삶은 고생에서 고생으로 이어졌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품게된 아픔입니다. 세상 능력 넘치는 잘난 남자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조건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고 그 능력 최대로 발휘해 부러울 것 없는 세상에서 강자로 살아났습니다. 그런 애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마련해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라도 했을지요. 나중에 그 후예들이 섬기던 몰락이란 신을 보면 결국 저들이 전심으로 의지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현재적인 번영에 대한 욕망이었으니, 과연 현재적인 축복만을 갈구한 애서의 현재적 믿음을 충실히 따른 것이니 부모의 믿음에 대한 중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애서가 그리되도록 부추린 것 또한 이런 모양의 애서를 우상시하며 자랑스레 편애하고 하나님 사랑을 제일로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소홀히 한 이삭의 불성실한 믿음교육의 열매이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서 믿음 제일 주위로 키웠지만 키가 자라 성년이 되어 세상에서 살다보니 물질은 사랑하고 속화 되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의 심기운 믿음을 교유이 언젠가는 제대로 일을 하여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기고 주님위해 헌신함을 인생의 최고 행복으로 여기고 살기를, 세상에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는가 올라오는 불안과 아픈 마음을 누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부모일지라도 부모가 헌신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같은 기쁨의 동역자들이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행여라도 세월 허송하지 말고 온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아이들 되도록... 저들이 온전히 헌신하게 하는데 부족하여도 이 땅에서만 번성만 애서보다는 고생이 따라와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기쁨으로 동행하는 야곱의 축복이 임하길, 이 땅의 차세대 아이들 위해 눈물의 기도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명문가문들로 이어질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 흔적기관으로 취급됐던 맹장, 꼬리뼈, 사랑니, 필요성 속속 밝혀져 무시했던 정크DNA에 생명공학 및 각종 질병 관련정보 담겨있어

에서 자라나고 있다.

진화론은 그 쓸 데 없는 기관을 흔적기관(vestigial structure)이라고 부르며, 태고적 동물이었던 우리 조상들에게는 필요했지만 사람으로 진화된 지금은 그 기능이 별로 필요 없거나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과거에 흔적기관이라고 했던 기관들의 기능들이 거의 다 밝혀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세세하게 밝혀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기능이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기관들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흔적기관이라고 제쳐 놓지 않는다. 오히려 그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몸의 어떤 기관은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 것도 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모든 기관들이 완전한 기능을 하도록 최적으로 설계하셨을 것이다. 물론 생존의 문제와 상관없이 아름다움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1차 기관이 기능을 잃었을 때를 대비한 2차 기관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또 지금은, 진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최적의 디자인**

가장 빠르지도 않고 가장 힘이 세지도 않지만 넘침도 모자람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디자인!

기능이 없는 흔적기관이라고 여겨왔다. 사람의 경우에도 대장에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자리 잡도록 하여 유아 면역 발달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성인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역시 대장에 서식하는 정상 균(박테리아)을 유지하는 일이다. 항생제를 복용했거나 콜레라 감염 등으로 심각한 설사가 나서 장에서 서식하는 유익한 균들이 사라졌을 때, 맹장에 보관되어있던 유익한 균들이 다시 자라나 정상적인 대사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꼬리뼈**  
지금도 꼬리뼈는 맹장과 더불어

한 기능을 하는 유용한 치아였을 것이다. 하 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이 문제가 아닐까?

**Junk DNA**  
사람의 세포 속에는 약 30억 개나 되는 DNA(4가지의 글자)가 23개의 염색체에 나뉘어 보관되어있다. 각 부모에게서 동일한 양의 비슷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총 글자 수는 60억 개가 된다. 한 벌인 30억 개의 정보 양을 글자크기 10, 한 줄 간격으로 쓰면 무려 100만 페이지 분량이고, 성경책 570권 분량이다. 그런데 이 정보 중에서 호르몬, 머리카락, 손톱, 해모글로빈 등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정보는 전체의 2%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8%의 정보는 쓸 데 없어 보였다.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98%의 정보를 쓰레기 DNA(Junk DNA)라고 불렀던 것이다. 진화과정에서 필요가 없어진 정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야외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목적들을 위해 디자인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도 치타처럼 빠르지도 않고 고릴라처럼 힘이 세지도 않다.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빠른 치타와 훨씬 힘이 센 고릴라를 다스리고 있다. 사람은 이 시간공간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가장 알맞게 디자인되어있다. 물론 타락의 결과 우리 신체와 환경이 변화된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폭 넓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존재는 단연코 없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리고 인체를 연구하며 넘침도 모자람도 없다고 고백했던 다빈치의 고백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월등한 존재임이 확실하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여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시139:17) 이런 고백을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지하기를 바란다.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인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 1 2014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영목사)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0일 ~ 12일	침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23일 ~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3일	오산리 최자실가택 금식기도원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1 2013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3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일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3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4일 ~ 5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6일 ~ 8일	함평교회(최은일목사)	27일 ~ 30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1일 ~ 13일	침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 2

2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2일	영원교회(리승철목사)
4일 ~ 7일	GST 30th 신학생훈련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7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 3

3일 ~ 6일	침파교회(백여호수이목사)
10일	순복음삼마교회(이일성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4일 ~ 23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신광교회(김봉현목사)
31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4

7일 ~ 9일	월명동신교회(조은일목사)
11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재물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9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2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용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 3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호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5

3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6일 ~ 9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10일	광명수복을교회(하용달목사)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30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 6

3일 ~ 5일	예유교회(류병희목사)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3일 ~ 2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26일	가나안교회(김의철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 7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5일	안천 대문교회(전명구목사)
15일 ~ 1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8일 ~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9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 8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2일	산곡기도원(한기재목사)
4일	청운교회(강대석목사)
5일 ~ 8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6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2일 ~ 15일	GST 31th 신학생 여름훈련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9

1일	LA 미주 평화교회(김은목사)
2일 ~ 1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29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30일	새일교회(이정수목사)

### 4

3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재물
7일 ~ 9일	목동교회(최현우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20일 ~ 23일	신성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5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6일 ~ 29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 10

1일	칼빈대학교 · 대학원 재물
1일 ~ 2일	새일교회(이정수목사)
5일	햇빛교회(임숙희목사)
7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3일 ~ 16일	남서중앙교회(여찬근목사)

### 17

17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일	LA 미주 베이커스필드교회 (지동근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 29일	동양교회(김종열목사)

### 11

4일 ~ 6일	일성교회(원성목사)
10일	창대교회(최용도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인양)
18일 ~ 20일	대전 성광교회(정민영목사)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 12

1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5일 ~ 18일	신광교회(김성민목사)
22일	인천가나안교회(정영석목사)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213) 382-1450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조성근목사 CBS TV 특강 (세상을 이기는 지혜 "솔로몬")**  
 ■ 다시보기 www.cbs.co.kr/tv  
 ■ 페이스북 www.facebook.com/cbsolomon  
 ■ 트위터 www.twitter.com/cbsolomon  
 ■ 유튜브 www.youtube.com/cbsolomon





목회서신

인-앤드-아웃(In-N-Out)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동부에서 오신 특별새벽기도회 강사들께 인-앤드-아웃(In-N-Out) 햄버거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동부에 없는 음식점이라는 희소성과 훌륭한 맛 때문에 모두들 맛있게 드시고 즐겨워하셨습니다.

우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음식을 먹다가 요한복음 3:16, 잠언 3:5, 요한계시록 3:20, 나훔 1:7 등의 성경 구절을 발견할 때에 참업주가 필시 아름다운 신앙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 산후에 그대로 음식점을 나갈 수 있도록(Out) 만든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항상 교회 생각으로 꼭 차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인-앤드-아웃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In & Out'과 드라이브스루(drive-thru) 개념이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교회가 부르심을 받아 모이고(In) 보내심을 받아 흠여지는 교회(Out), 즉 모인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작은 예수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그런 소명을 가진 성도들의 드라이브스루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교회들이 교회 안으로 모이는 '인(In)'은 잘했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는 '아웃(Out)'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를 통해 사람을 교회 안으로(In) 인도하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그들을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교회 밖으로(Out) 보내는 일에는 소홀하였습다. 목회자와 성도 모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즐겨워했다는 것은 교회가 성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밤 깊도록 동안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론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찬송가 가사와는 달리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보다 세상이 괴롭다고 교회 안에만 있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아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은 교회가 '아웃' 뿐만 아니라 '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티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젊은이들조차 가나안(안나가)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등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에 몰들고 때로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염증을 느끼기 때

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교회로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점이 원활한 인(In)과 아웃(Out), 즉 드라이브스루(drive-thru)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전도도하고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꿀 송이보다도 더 달고 요묘한 생명의 말씀을 서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오를날은 교회가 '아웃' 뿐만 아니라 '인'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적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티세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교회를 다녔던 젊은이들조차 가나안(안나가) 성도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교회를 등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세속주의와 성공주의에 몰들고 때로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몰지각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염증을 느끼기 때

“디아스포라교회 한날 한마음 기도 추진”

세기총 2회 정기총회, 새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제2회 총회가 지난 25일 오전부터 3일간 뉴욕성결교회(담임 장석진 목사)에서 열려 신임대표회장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2회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에 장석진 목사를 선출했다. 개회예배는 황의준 목사(상임회장) 사회로, 기도 전영현 목사(미기총 상임회장), 특송 뉴욕성결교회 챔버 오케스트라, 성경봉독 김바울 목사(공동회장, 호헌총회장), 특송 황진호 안수집사(뉴욕성결교회), 말씀 박희민 목사(성서화운동미주대표회장), 축도 이승주 목사(재일한선협총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로를 구성했다. 직전 회장 박위근 목사에게 감사패가 증정됐다.

점심식사 후 시작된 정기총회는 먼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주 각지에서 온 세기총 관계자들이 인사했다. 호스트 장석진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의 수도인 뉴욕에 온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이어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사회로 회계보고(수익 3천만원, 잔액 150여만원)했으며, 정관계정위원회는 총재와 사단법인항을 삭제하는 등 개정안을 소개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전했으며, 박위근 목사의 축도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쳤다. 세기총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0만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주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며 효과적인 복음전파를 위해 2013년 한국에서 시작됐으며 박위근 목사가 초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바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운영위원회(공천회) 발표에 이어 임원선출을 통해 장석진 목사를 2대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경증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 상임회장 장종현 황의준 김동업 이명성 목사, 사업본부장 전영현 목사(미주) 등을 공천했다.

제9대 미주한인전국재단 1차 임시총회 및 KANF, USA 포럼이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장 신임 대표회장은 △세기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남북통일을 위한 기어 △세계선교를 위한 연합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한 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특별기도회를 추진하겠다는 취임사를 하며 10대 중점시역을 발표했다. 신임임원으로 서기 송병기 목사, 부서기 한기홍 목사, 회계 박영진 장

이날 격려사는 조일래 목사(공동회장, 기성총회장), 피종진 목사(고문, 세계복음선교회 대표총재)가 했으며 축사는 임형태 목사(미기총 대표회장), 이병용 목사(한세협 직전회장), 이재택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뉴욕한인회 민승기 회장, 류종길 박사(미주성결대학교 총장) 등이 맡았다.

총회 회무 후에는 북한인권실태 보고회를 통해 탈북자 출신 조진해 대표(NKinUSA)의 간증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폐회예배는 김해중 목사(UMC)가 말씀을

특송, 박희민 목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700만 해외한인기독교인의 임무'(벧전 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학량 목사가 축도했다. 3부 특강은 임응근 의원과 조응규 의원이 축사했으며, LA코리언팜스코칼이 특송을, 한기형 목사가 '미주한인초기이민/인천내리감리교회', 송정명 목사가 '미주한인기독이민자의 임무와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연했다. 한편 28일에는 조찬기도회와 미주한인전국재단 포럼, 오찬 겸 LA/OC 지회 인준식, 1차 임시총회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에 참석한 후원자들이 찬양과 경배시간에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주님 예비하는 축복된 자리 되길”

제20회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 성황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 제20회 어린이전도협회 후원의 밤이 지난 29일 오후 6시 옥스포드 팰레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대표 여병현 목사는 “어린이전도협회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가 다가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축복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 카니박 이사장이 환영인사를 했으며 2부 식사와 교제시간에는 이날 큰 협회를 후원하러 온 모든 이들의 친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3부 어린이전도협회 소개와 나눔의 시간에는 어린이전도협회 사역소개와 김조섭 어린이가 '살아계신 주, 우주자전제', 'You Raise me up'을 불렀으며, 박갑수 목사가 이날 참석자들과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린이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후원의 밤은 여병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 1부 찬양과 경배, 2부 식사와 교제, 3부 어린이전도협회 소개와 나눔 등으로 진행됐다. 1부 찬양과 경배 시간은 케빈바 선생이 찬양

PCUSA 남가주한미노회 해산안 통과

29일 총회·대회에서... 남가주하와이대회 상정

미국장로교(PCUSA) 남가주하와이 대회(Synod of Southern California and Hawaii) 행정위원회가 상정된 남가주한미노회 해산안이 지난 29일 성마가장로교회(St. Mark Presbyterian Church, Lomita, CA)에서 열린 총회·대회(Synod Assembly, 의장 조 스톰스 목사)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남가주한미노회는 오는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221차 총회(General Assembly)의 인준을 거쳐 해산하게 된다.

29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두 시간 반 동안 열린 총회·대회에서는 한미행정위원(의명 Hanmi AC)의 해산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별 무리 없이 통과됐다. 그 외에 △한양장로교회와 샌퍼나디노 노회로 △트렌스제일장로교회가 피서피델리티노회로 이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따라서 현재 한미노회의 소속교회는 총 22개 교회가 됐다. (정리: 박준호 기자)

남가주교계 '구원파 박옥수 집회' 침묵

12개 교계단체 MOU맺고 이단 공동대처 어디로?

구원파 박옥수 집회가 LA 다운타운에서 집회를 가졌지만 남가주교협 등 기독교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관심 있는 성도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가게 했다.

지난 29일부터 3일간 '바ible 크루세이드'라는 주제로 아라타니 제펜아메리칸 극장에서 열린 구원파 집회에 대해 한인교회들은 집회 참석자제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하지 않았다. 교회들은 주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예배 광고 등을 통해서도 집회참석방지 홍보를 하지 않았으며, 남가주교협 등 교계단체도 침묵으로 일관해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게 됐다.

이번 집회는 한어권이 아닌 영어권 한인들을 비롯, 타인종까지 공략하는 집회로 열렸다. 집회 전 한인 타운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에 전단지들을 나눠주며 홍보했으며, 패어팩스 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광고판을 비롯해 버스정류장 광고판에 광고를 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특히 남가주교협과 OC교협 등 12개 교계단체들은 지난 2013년 2월14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이단문제에 대해 발 빠르게 공동대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한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박옥수 집회를 통해 나타난 결과는 이들 단체들의 침묵으로 실질적으로 이단대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또한 집회에 관심을 보이면 박옥수 씨가 쓴 책들을 대여해주며 연락처를 받는 등 포섭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한 제보자에 따르면 "학교 앞에 있는 광고판과 이단들이 전단지를 나눠주며 홍보활동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처도 이

야기된 적이 없어 교회가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번 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이단에 빠져버릴까 매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7월에 열린 신천지 집회를 비롯, 이번 구원파 집회의 성격은 영어권을 공략하는 것이었다. 즉 이단들의 활동영역이 한어권을 벗어나 영어권으로 확대된 것이며, 앞으로 이들 이단들의 활동영역은 스페니시를 사용하는 라티노를 비롯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가주교협 등 교계단체를 비롯한 한인교계의 대응방식은 '침묵'이라는 점, 한인교회들 역시 이에 대해 교인들에게 어떠한 주의사항도 주지 않고 있는 점은 지 교회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듯이 보인다.

이는 아낌없는 교회예산을 세우며 2세들에게 신앙전수 열의를 보이고, 한인디아스포라가 미국 땅에 살게 된 이유는 신앙을 전수해준 미국에 보답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부르짖던 한인교계 지도자들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것이다. 한인사회 이단들의 약진으로 인한 기독교회의 영향력 약화의 가속화가 우려된다. (박준호 기자)

시드니순복음교회 정우성 목사 별세

시드니순복음교회 정우성(사진) 목사가 27일 시드니 밴스타운 병원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70세. 정 목사는 1975년 호주 시드니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담임목사로 35년간 섬겨왔다. 오세아니아 주를 중심으로 성령운동을 전개, 시드니를 비롯해 인근 도시와 뉴질랜드 등에 27개 지성전과 지교회를 세웠다. 특히 한인 디아스포라 연합운동에 기여했고, 세계성령오세아니아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세계선교에 힘써왔다. 한국기독교성령 100인에 선정됐고 제5회 홀리스피



목사가 있다. 장례는 순복음오세아니아총회 총회장으로 치러졌다. ▲연락처: (612)9750-5777 시드니순복음교회 김범석 목사

리츠맨 메달리 온상을 수상했다. 유족은 장남 사무엘과 3녀(선혜 영혜 미혜), 사위 김범석

“성공적 가치관으로 BAM 동참”

EWC 플러신학교 비즈니스선교 세미나

동서선교연구개발원(대표 박기호 교수) Business as Mission(BAM) 세미나가 27일부터 29일까지 플러신학교 트레비오 디토리움에서 개최됐다. '21세기 선교동향, 비즈니스와 선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닐 존슨 박사(Business as Mission 저자), 헤리 김(TW 디렉터)이 강사로 나서 세미나를 인도했다. 또한 엄경섭 목사(동서선교연구개발원 사무총장)이 본 개발원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Business As Mission 저자 닐 존슨 박사가 강의하는 모습

마지막 날 오후 강의에서 닐 존슨 박사는 “현장에서 BAM(Business as Mission)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으며 교회가 어떻게 BAM에 동역할 수 있는지 연구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닐 박사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들에게 아이디어는 매우 다양하다. 그들의 달란트와 은사 그리고 소명 등은 광범위하다. 따라서 올라

를 BAM의 모델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은 어렵다. BAM은 현실적인 비즈니스이며 실제적인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실제적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존재한다. BAM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맘에 들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막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상당히 실제적이고 어려운 것이다. 준비가 안돼있다면 사탄의 공격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 말하며 “비즈니스 하는데 있어 가져야 하는 것은 성공적인 가치관”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 동부교계 기사판



## 제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

제1회 선교적 교회 세미나가 오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주 예수교회(담임 배현찬 목사)에서 열린다. 동 교회가 새로 건립하는 디아스포라 사회선교관(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에서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란 주제로 개최되는 이 세미나의 강사는 한국의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와 김중국 선교사(인도네시아장로신학대학 학장, KWMC공동의장), 배현찬 목사(KWMC공동의장) 및 노승환 장로(주 예수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의 주제 강의와 주 예수교회에서 진행되는 지역사회 선교 현장 견학을 통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 적용에 중점을 두게 된다. 참석대상은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30명.

▲문의: (804)560-7500, 7509, www.LJKC.org

## 담임목사 청빙

뉴욕새교회가 제 3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지원 자격은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하고 미국개혁교회교단(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5년 이상 목회경험과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가진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소정양식), 자기소개서(소정 양식), 목회계획서(소정양식), 최종 신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최근 설교 DVD(2개)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필요하다. 마감일은 5월 31일.

▲문의: (917)576-3921 황달연 장로, dalehwang100@gmail.com

## 중독예방세미나

패밀리리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중독예방세미나"(Addiction Prevention Seminar)가 4월 19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린다. 미전역에서 펼쳐질 '중독예방 강조주간'과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부모와 함께 하는 청소년 인터넷 마약 예방 세미나로 강사는 "Dark Side of Technology"의 저자인 MR. Brian Huddleston과 Jee Park, Joy Chung 등 3명. 청소년과 부모가 같은 시간에 각각 다른 강의실에서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비는 청소년은 무료이며 부모/성인은 20달러.

▲문의: (201)242-4422, 647-1446, (718)961-0151, (917)698-6065

## NC교회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노스캐롤라이나(NC) 한인교회협의회(회장 나성근 목사)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부활주일인 20일 오전 6시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 회에서 열린다. 설교를 맡은 나성근 목사는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의미와 능력과 실천에 초점을 맞춰 최선의 메시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704)520-0900

## PCA한인동남부노회 정기노회

PCA한인동남부노회 정기노회가 4월 7일부터 9일까지 포트마이어스 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노문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노회에서는 2명의 목사후보생(김성악, 유성웅)과 5명의 강도사(강석주, 김명진, 임현필, 정성찬, 정성지), 이정진 목사임직 등이 있게 된다. 동 노회는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밀워키에서 열리는 CKC 정기총회와 수련회 문제 등을 다루게 된다.

# "착하고 성령 충만한 협력자 됩시다!"

## 뉴욕교회 부활절새벽연합예배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주최하는 2014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제 2차 준비기도회가 지난 31일 뉴욕신일교회(담임 박병준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후러싱1지역준비위원장 김기호 목사의 인도로 기도 이지용 목사(후러싱4지역준비위원장), 말씀 이성현 목사(협동총무), 통성기도 박병준 준비위원장, 광고 송일권 목사(서기), 축도 전희수 목

사(부회계)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성현 목사(뉴욕복음화교회 담임)는 "좋은 협력자"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행1122-26 본문에 나타난 바나바를 예로 들어 "좋은 협력자는 첫째, 착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며 둘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연합사역을 하면 서운한 점도 많고 불평불만도 많지만 뉴욕교회 산하의 회원교회

와 목회자들이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 "여호수아에서 보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곤경에 빠졌을 때 좋은 협력자 갈렙이 가나안 정복에 나섬으로 동료 여호수아에게 힘이 됐다"고 설명하며 "어

려울 때 알곡의 진가가 나타나듯이 우리 모두 지금 불타는 사명감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위해 △교회와 회원교회를 위해 통성기도를 인도한 박병준 목사는 "이번 주내로 지역별 설교자를 결정해 알려주기를 바란다"며, "보다 많은 협력을 위해 장소제공교회나 지역준비위원장과는 별도의 설교자를 새우는 것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3차 준비기도회는 4월 14일(월) 오전 10시30분 뉴욕순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 "예배 잘 드려라" ...성령충만 치료대성회

###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초청해 "성령충만 치료대성회"를 가졌다. 이영훈 목사는 어머니 김선실 목사의 목사안수기념 및 85세 생신축하예배 참석을 위해 25일 새벽예배에 말씀을 전했다. 이만호 목사의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장을 기념해 지난 25일 새벽예배에 말씀을 전했다.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축이 밝혔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복 받는 비결"(롬8:28)이라는 제목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복 받는 비결은 첫째, 예배를 잘 드려라. 예배를 빼지않고 참석하면 절대긍정의 믿

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할 때 영통의 복을 받는다. 셋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며 절대희망으로 신앙 생활해야 한다. 복 받으려면 예배와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동 교회는 이날 예루살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가 참석해 특별 찬양을 했으며 예배후 푸짐한 다과로 친교를 나눴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교회 부활절새벽연합예배 2차 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임마누엘한인장로교회 김경열 담임목사 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김경열 목사, 임마누엘한인장로교회 취임

뉴욕에서 활동했던 김경열 목사가 업스테이트 뉴욕 롬(Rome)에 소재한 임마누엘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동 교회는 23일 설립31주년 예배와 담임목사 취임환영예배를 드렸다. 예배에는 뉴욕의 목회자들이 참가해 축하했다.

김경열 목사는 인사를 통해 "몸은 19세기 때 경제 부흥으로 많은 한국 이민자가 살고 있었지만 지금은 군부대 이전과 2차 산업의 붕괴로 모두 떠나고 소수만 살고 있는 소도시로 변했다. 도시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국간판이 하나도 없지만 이곳에 한국인들은 무궁화 같이 끈질긴 인내로 아름답게 살고 있는 모습들이 참 귀하다. 한인디아스포라가 적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로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작은

힘이라도 노력하겠다"며, "지난 1월 초 뉴욕목사회가 주최한 공식석회에 참석해 기도한 것이 응답됐다"고 말했다.

김경열 목사는 고등학교 교사를 재직하다가 부르심을 받고 순복음신학교와 백석신대원을 졸업하고 인천과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 20년 목회했다. 교단일로 화산폭발 피해를 입은 필리핀에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사임하고 선교에 뛰어 들어 2002년 세계오지선교회(WOM)를 설립했으며 KWMA 정회원으로 선교정책을 연구했다. 2012년 뉴욕으로 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세계선교회 본부 선교사로 사역한 바 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에서 가진 성령충만 치료 대성회에서 이영훈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 뉴욕전도협 연합전도지 배부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사) 10회기 첫 사역인 연합전도지(사전)가 제작됐다[본지 1477호 제10면 참조]. 전도협의회는 지난 2주 동안 25교회가 신청해 6만장을 만들어 배부했으며 EM을 위한 영어권 전도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윤준 회장은 "뉴욕복음화를 위

해 새생명전도운동, 전도자 양성훈련, 지역교회 연합부흥운동을 목표로 하여 함께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전도훈련을 위해 훌륭한 강사를 선임해 온 교회에 집중교육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연락처: Jameshur63@hotmail.com (718)637-1470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골로새 1:12)

당신을 위하여 준비된 복을 받으십시오.

<b>원주순복음교회</b> 45-23 Marcy St., Flushing, NY 11355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b>뉴욕갯세미네교회</b>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b>빛교회</b> 162-13 63rd Ave., Flushing, NY 11355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b>원주성서교회</b> 38-23 164th St., Flushing, NY 11355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b>순복음성서교회</b> 162-13 63rd Ave., Flushing, NY 11355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b>뉴욕성서교회</b> 38-23 164th St., Flushing, NY 11355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b>뉴욕성서교회</b> 17 New South St., Hicksville, NY 11801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b>라이프교회</b> 58-26 Kissena Blvd., Flushing, NY 11355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b>뉴욕성서교회</b>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b>뉴욕성서교회</b> 제일목사: 이기훈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b>뉴욕갯세미네교회</b>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ine.org	<b>뉴욕복음성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nygetsemine.org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찬양: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b>뉴욕새벽별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917)733-7387, Fax: (516)883-1961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ae@yahoo.com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기도회: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평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toc.com	<b>뉴욕중부교회</b>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b>뉴저지성서교회</b>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매주1주, 3주)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http://sungdochurch.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롱아일랜드성서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사님: (516)746-4084 190 Ellison Ave., Flushing, NY 11358
<b>에벤에셀선교교회</b>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b>예사광교회</b>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b>주비전교회</b>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예배(월-토):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ema Rd., Manhasset, NY 11030	<b>중부뉴저지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새벽예배: 오전 6:00 Tel: (732)310-0022(교회), Fax: (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b>퀸즈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8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cpckm@gmail.com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b>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오늘를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b>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www.chpress.net		



# 임원들, 지역교회위해 매일 저녁기도회

## OC목사회 주최 제1회 역대 회장단 초청 간담회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가 주최한 제1회 역대 회장단 초청 간담회가 24일 로망장로교회에서 30여명의 오렌지카운티 목사회 역대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예배에서 박대근 목사는 설

교를 통해 "잇사갈 지파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형제들을 통솔했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과 목사회가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부 간담회는 목사회 회장 김영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영찬 목사는 "현재 목사회가 어려움을 넘어 발전할 수 있도록 36년간 목사회 회장으로 사역해온 여러 중경회장님들의 경험과 고견을 듣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히고 "지금 목사회에서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임원들이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회를 갖고 있다"며, "이 기도회에 참여해주시고 기도회를



OC 목사회 주최 제1회 역대 회장단 초청 간담회가 로망장로교회에서 30여명의 오렌지 카운티 목사회 역대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남가주든든한교회가 비전코트를 마련하고 토요한국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회를 실시했다.

## 남가주든든한교회 비전코트 오픈

### 꿈나무 한국학교 첫 운동회 성료

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김현인 목사)가 지난 2월말 청소년들이 맘껏 뛰놀 수 있도록 비전코트를 신설했다.

요즘 청소년, 청년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남가주든든한 교회 성도들은 파킹장 중 3분지 1 가량을 할애한 6천스퀘어피트 넓이의 비전코트를 마련하고 농구코트를 비롯한 축구, 족구 등 종합운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완비했다.

으로 불러내 공을 차고 뛰어 놀게 하자고 뜻을 모아 십시일반 공사비를 마련해 이 일을 추진했다"고 경위를 설명하며 "금요일 밤, 토요일, 주일 등 아이들이 공을 차고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 기쁘기 그지없다"고 기쁨을 표했다.

(이성자 기자)

## 나성영락교회 한어고등부 전도집회

### 'Reign-Revival-Rise' 주제로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한어고등부 청소년 전도집회가 'Reign-Revival-Rise'라는 주제로 28일 오후 7시 교육관 채플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집회는 본 교회 GA 밴드의 찬양인도와 한어고등부 담

당 김형균 목사의 말씀선포, 간증시간으로 이어졌다.

김형균 목사는 "해마다 전도집회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제시한다. 1년은 문화전도 집회, 1년은 찬양전도 집회를 한다"고 소개했다.

통해서 목사들의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경회장단은 초창기 목사회가 오렌지카운티의 유일한 단체였고 친교와 활동이 왕성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목사회에 들어오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교회협의회 임원들부터 목사회 회원이 돼서 상호협력 단체가 되고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처음 열린 간담회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임원들이 참석한 뜻 깊은 자리였으며 4월 12일 조찬기도회에서 다시 모이기를 기약하고 합심하기로 마쳤다.

(기사제공: 오렌지카운티목사회)



새장로교회에서 열린 2014 춘계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손인식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유 느끼라"

### 새장로교회 춘계부흥회 강사 손인식 목사

새장로교회(담임 원영호 목사) 2014 춘계부흥회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손인식 목사(북한선교사, 이민목회연구원 원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됐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원영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저녁집회는 석규환 장로가 기도했으며 손인식 목사가 '당신은 누구입니까(요 8:3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손인식 목사는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격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신격에 맞게 사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특징과 선물은 자유다. 이 세상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끊으셔서 자유케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손 목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유해야 한다. 그 자유는 건강

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었을 때도 자유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우리가 누리는 신격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이고 복음이고 진리다. 내 발가벗기 상대까지 다 사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자유는 절대 자유다. 절대자유는 학식 지식으로 생산해낼 수 없다. 진정한 자유는 위로부터 받는 것이다. 절대자유하고 살다 주 앞에 가야한다. 반드시 가져야 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다. 이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손인식 목사는 둘째 날 저녁 '당신은 성도입니까(삼상17:45-49), 주일예배로 드린 셋째 날 집회에는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행 16:31-34)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KAFM7 마려한 등지찾기 프로젝트 설명회가 나성영락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은 설명회에서 질의응답시간에 참석자가 질문하는 장면

## KFAM 등지찾기 프로젝트 설명회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정조)가 실시하고 있는 등지찾기 프로젝트 설명회가 29일 오전 10시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KFAM 에스페솔 프로젝트 디렉터의 사회로 진행된 이 설명회는 LA카운티아보보호국(DCSF)을 통해 포스터 혹은 입양부부가 되려는 자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6명의 자녀를 입양하고 포스터를 통해 한 아이를 입양한 김기철 장로는 "혈육관계도 아닌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좋은 점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며 대하는 것이다. 이

는 부모들이 무조건 권가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녀들을 인격체가 아닌 아기로 대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김 장로는 "혈육관계가 아니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아이들에게서 아버지(아빠)란 호칭을 듣게 되는 데는 사소한 일이지만 호칭이 기쁨과 힘이 된다"고 말했다.

KAFM은 오는 6월부터 포스터패밀리를 위한 30시간 교육에 들어간다. 일시와 장소는 미정이며 추후 발표된다.

▲문의: 1-844-532-6459

(박준호 기자)



솔로리스트 보컬 앙상블 보시엘레스티(Vocielesti)의 두 번째 연주회가 지퍼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솔로리스트보컬앙상블 보시엘레스티 성황

솔로리스트 보컬 앙상블 보시엘레스티(Vocielesti)의 두 번째 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 지퍼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음악회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등 성가곡과 'Au fond du temple saint', 'Sous le dôme' 등 프랑스어, 'O soave fanciulla' 등 오페라 아리아, '꽃잎', '남촌', '강 건너 봄이 오듯' 등 가곡 등을 소

프라노 독고정화, 소프라노 글로리아정안, 메조소프라노 원순일, 메조소프라노 정현주, 테너 양두석, 테너 오위영, 바리톤 장상근, 바리톤 채홍석 등 최정상급의 성악가들이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으며, 이날 지퍼 홀을 가득 메운 청중들이 앵콜을 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준호 기자)



나성영락교회 청소년 찬양전도집회 '키스더십표'가 'Reign-Revival-Rise'라는 주제로 열렸다

<p><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서부(CA)교회안내</b></p>	<p><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나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p>	<p><b>나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토)</p>	<p><b>나침반교회</b> 담임목사: 민경업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mban.org</p>
<p><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b>남가주리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b>남가주사망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영어예배: 오전 11:45 (Holyway/영어예배) KDC/영어예배) 주일부흥예배: 오후 1:10</p>	<p><b>대흥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11:45 주일 5부예배: 오전 9:45,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p>	<p><b>동문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b>동양선교회</b>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b>드림교회</b>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영어예배: 오전 11:30 월요일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토), 6:00(토)</p>	<p><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영어예배/영어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토)</p>	<p><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월-토)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생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수요예배: 오후 7:30)</p>	<p><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b>삼성장로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월-토)</p>	<p><b>새찬양교회</b>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b>새생명선교회</b>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월-토)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b>아카데미 온누리 소망교회</b> 담임목사: 조묘숙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안디옥장로교회</b>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어)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예배: 오전 11:00 교육부찬양예배: 오전 11:00</p>
<p><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새벽 5: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b>월서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요예배: 오후 8:00</p>	<p><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은혜세계예배: 오후 2:45(월-토)</p>	<p><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어)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월-토)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b></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선교 펴기

## 러시아

저희 러시아선교교회가 설립된 지 22년 반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르다보니 선교의 양상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기독교를 모르고 교회도 성경도 예수님의 구원도 알지 못해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전 러시아에 45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학교도 많고 목사도 많이 배출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인들의 교회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기복신앙이나 율법주의 신앙 같은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성경과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기보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목사들도 정당한 신학을 공부하고 구원의 확신과 복음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대표나 지도자로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복음적 설교를 하지 못하고 기복신앙만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라서 참 안타깝습니다.

러시아에는 러시아정교회의 교단 이외에 개신교의 4개의 큰 교단이 있는데 첫째 율법주의 신앙을 강조하는 침례교회(미국이나 한국의 침례교와 완전히 다름), 둘째, 기복신앙을 강조해서 현금해야 구원 받고 현금해야 복 받는다는 카리스마교회, 셋째, 침례교 교리도 싫고 카리스마교회의 기복신앙도 싫다는 복음주의 독립교단 그리고 넷째: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장로교단인데 이 장로교회 목사들도 제대로 된 개혁신앙과 웨스트민스터의 교리를 배우지 못하고 안수를 받았기에 대부분이 카리스마교회의 신앙과 비슷해서 이름만 장로교회이지 전혀 복음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회 숫자가 미미해서 러시아에 잘 알려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사명은 이미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주의 종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중요성을 재 인식시켜 그들에게 복음적 교회와 복음적 설교의 중요성을 강의하여 러시아에서의 제 2의 종교개혁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는 개인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개인전도나 전도집회는 거의 불가능하고 성경 세미나나 부흥회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러시아 교회들은 가정(부부관계) 세

미나, 재정관리 세미나, 알코올 마약 세미나, 이런 세미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독한 척추 질병과 심장병과 암 병에서 수술 없이 오직 기도로 치료해 주셨을 뿐 아니라 이런 질병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때에 저를 사용하시려고 20년 동안 산실과 불설고 말도 설은 러시아 땅에 보내 주셔서 말로 현연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하시며 훈련을 시키시다가 이제 나이 80을 바라보는 76세에 저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전 러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방

를 요청함으로 러시아 목사들에게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룬 속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며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병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상적, 육신적, 지식과 철학의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이며 복음적 설교가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집회에 참석한 신자 및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과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 교인들은 저를 초청하면서도 교통비나 사례금이 전혀 없으므로 제가 여비가 마련될 때만 갈 수 있음으로 그들의 초청에 일일이 응하지 못함이 못내 아쉽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 3월 18, 19일에는 러시아인 Independent Evangelical Churches 총회에 청빙 받아 한국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앙에 대하여 강의했으며 그들이 개혁주의 신앙을 갖게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2. 우리교회에서 성경암송대회를 실시하고 다른 교회에서 참관하게 하여 다른 교회들도 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려고 합니다.
3. 4월 21일부터 24일간은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에서 아르메니아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에 강사로 초청받아 역시 개혁주의 신앙과 웨스트민스터 교리에 대하여 특강을 하게 됩니다.
4. 매월 첫째 월요일 오전에는 러시아 목회자를 위한 복음적인 교회와 복음적인 목회(설교)에 대한 세미나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 각 교회마다 교회 젊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성경토론(설교) 대회 개최, 지방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결선은 모스크바 기독교방송국에서 합니다. 주제는 1)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2)초대교회를 본받는 현대적 교회에 대하여 3)천국과 지옥은 실제 있는가?
6. 젊은 목회자나 교회 젊은 지도자를 한국이나 미국을 약 2주일간 방문시키며 여러 교회를 순방하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목회와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견학시키려 함.

이상과 같은 계획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교회에만 매여 있지 말고 전 러시아 교회와 목회자를 실질적으로 재교육시키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스크바에서 김바울 드림  
이메일: kimpaulrussia@hanmail.net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지금은 병든 자들을 위해 집회를 하면 많이 모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게 되어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와 가족들이 육신적으로도 병들고 교회마저 전도가 안되고 점점 쇠퇴하여져가니 살아남을 방법이 없으니 저를 초청하고 집회



## “본대로 들은 대로” 고결한 목련

연못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에 대조해서 나무에 그렇게 고결하게 피어나기에 목련(木蓮)의 이름이 주어졌 것으로 본다. 겨울 지나 청명절이라 싶으면 개나리 꽃이 터기 시작하고 진달래도 그 뒤를 따르다. 셋노랑개 떨기꽃은 개나리 동산도 가볼만 하다. 진달래 동산도 그러하거나 나무 잎 몽땅 떨어져 버린 벌거벗은 듯 한 나무에 그렇게 고결하게 꽃만 먼저 피어나는 목련을 볼 때, 그 깨끗한 하얀 꽃이 한 나무 그득히 피어남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조화를 다시금 감탄하게 된다. 새벽기도회 같은 길가에 목련이 나날이 봄우리로부터 북타지면서 그 고결성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그 꽃을 아꼈다면 감사한다. 그 앙상한 벌거벗고 있는 나무에 웃도 있지 않았는데 그 고결한 한 꽃이! 어떻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 나무속을 살살이 쪼개서 현미경으로 검사해봐도 해도 어디서 그 고결한 정결한 흰 꽃이 나오는지 알 수는 없다. 화학적으로 분해를 해봐도 여기서 나오는구나 해석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신비함을 인간이 설명할 수 없으리라.

내가 중국에 있을 때 한 공원에 목련만 심은 화원이 있었다. 그때는 수많은 목련이 그 동산에 그득했다. 그 고결한 꽃이 그 도하는 향기를 가져 마음껏 흠향할 수 있었다. 봄철이면 한 번 찾아가는 곳이었다.

하나님께서 욕을 가리켜 이 사람은 순전하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세 번이나 욕기 1장 2장에 말씀하신 바 있다. 그의 속성 가운데 첫째 순결하다 하심이다. 그 고결한 품성을 말씀하시겠다. 주님께서 나타내없이 빌립의 인도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실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음이로다” 하심도 우리는 기억한다. 욕같이 나타내 없이 목련의 고결함에 비길 수 있을까 한다. 욕 같은 나타내 없이 무리가 있다면, 네 옛날 중국 청도 제일공원에 목련동산을 본 그대로 들고 돌면서 감상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욕 같은 나타내 없이 이들이 사는 동산이 이 땅에 있을까. 이스라엘을 애굽의 길에서 구출하신 후에 이스라엘은 노래하는 가사 중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시라 그들의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라”(출15:17). 그 동산이 그림자. 주께서 심으신 그 동산에서 그 고결한 목련같은 품위 또 향기를 맡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른 초봄 목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뽑아 내시사 주님의 기업에 심으시기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의 동산에 심기운 선민이다. 죄악의 질곡에서 보혈로 풀려 내시사 속죄 사회 구원의 동산에 심은 성도들이 다 빼대만 앙상한 겨울을 지난 목련 같던 새봄 소식을 전해준다. 고결, 성결한 향기 풍기는 목련같이 성도는 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작심해서 아니. 하나님의 동산에 구원의 동산에 심기워시라. 목련만 심기운 동산에 가면 때때 마음이 없다. 시각에 들어오는 그 고결 성결한 하얀 티 없는 순수한 그 빛, 후각에 들어오는 그 향기 “복음이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야4:16). 그가 심으신 동산에는 향기가 그득하다. 후 매운 하니바람(복음)이 불어 닦기도 하고 온화한 봄바람이 불어오기도 한다. 순풍도 있고 역풍도 분다. 어느 바람이 불건 따라 향기는 날린다. 내 사랑하는 자를 부르는 향기다. 그 향기를 맡으려 자기가 심으신 동산을 찾으시라.

심기움을 받은 자라야, 그 구속의 동산에 심기운 자는 이 고결한 목련 꽃을 피운다. 이 성결한 향기를 풍긴다. 그 심으신 동산, 이 심기운 나무, 우리 사랑의 시각 후각을 만족시키고 그 전 감각을 만족시키라. 이 동산이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동산은 우리 주님의 감각을 만족시켜 만족할 뿐이다. (1999년, 2권)

<b>세계로 뻗어가는 교회</b> <b>해외 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강남중앙감리교회</b>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b>군포제일교회</b>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문동 870-10호	<b>금란교회</b>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b>광주신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목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미사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로 광교3동 복귀동 936-1번지	<b>동경중앙교회</b>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b>든든교회</b>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목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목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교우회) VIA DEI QUINTILI 32-30 00175 ROMA, ITALY	<b>명성교회</b>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평일 사회 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9:30 주일2부: 오전 11:00 주일3부: 오전 12:30 주일4부: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4: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419-2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새벽기도회: 오전 2:00 새벽예배: 오전 6:30 Tel. (02)2-266-3181~3, (02)2-266-3184 서울시 영등포구 독막동 520 (148-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www.seongsil.or.kr Tel. (02)2-998-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해동 221-49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목예배: 오전 11:30 수목예배: 오후 7: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b>수영교회</b>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3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목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2(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삼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수목예배: 저녁 7:3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 번지	<b>시은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2)942-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길 77-29(남대문)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2)2-786-6579, 새벽: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목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1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목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양곡동 415 www.yankok.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목예배: 오후 3:00 금요미사: 오후 9:30 Tel. (02)942-6881, 새벽: (02)942-6882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중증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104(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서3동 448-23	<b>청주중앙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훈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793-7937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b>뱅크비블리안교회</b>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주일 4부예배: 오후 9:00 금요미사: 오후 8:00(매일) 금요일예배: 새벽 4:00, 7:00, 9:00 www.pcov.org Tel. (055)454-5780, Fax. (055)45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목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소망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저녁 7:00 수목예배: 저녁 9:00 7/14종교개혁: 아침 7:40 수목예배: 오후 7:0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주일4부예배: 오후 9:30(주말)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 선교 펴기

## 멕시코

안녕하세요. 멕시코 박지만-한여정 선교사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 사역에 동참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멕시코 성경묵상사역이 벌써 11번째 현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앞서

며, 각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해 나누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때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 가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 현재 선지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련회를 위해 수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

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어 이제 서서히 부지를 기증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시겠다고...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지가 하나님께서 성경묵상 사역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기증을 받게 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경학교를 그곳에 세우실지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앞서 행하셨듯이, 앞으로의 모든 계획도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든지 믿음으로 행하기를

문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필수 과목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에 참여하신 분들은 총 12명이었고, 그중 몇몇분은 이미 묵상을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기 원해서 오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사역이지만, 참석하신 성도님 한분 한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삶이 드러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된 수업이 앞으로 16주 동안 빌립보서, 사무엘

기 세미나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 토요일에 멕시코시티 주변에서 약 50-60명 정도의 목회자, 성도님들이 모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6-7년 동안 훈련받고 계신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서서히 말씀도 전하시고, 선교여행을 통해 성경묵상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2, 3월도 마찬가지로 정기 세미나가 진행되었고, 매달 곳곳에서 새로운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이런 정기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며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 11,000명 그리고 둘째 날 13,000명이 넘는 참가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회개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전도 집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인 주일은 이동홍 선교사님께서 개척하신 14개의 교회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며 100명에 가까운 성도님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현지인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분들 마음



니카라과 집회에서 갖은 성찬식과 100여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

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 나아 갈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3개월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1월 13-16일 성경묵상 사역자 수련회  
올해에도 매년 1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성경묵상사역 선교사수련회에 참여 하였습니다. 3박4일 동안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말씀으로 도전받고, 함께 기도하

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러 모양으로 저희 선교사들이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년 1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열릴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한 부지  
작년 4월에 성경학교를 위해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곳을 놓고 기도 하며 고민하던 중, 지난 1월 기증자에게 메일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질병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스라 성경학교 개강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후 2월부터 에스라성경학교 개강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일주일전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흘간 새로 등록한 학생들을 위해 성경묵상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에스라성경학교 모든 학생들, 그리고 교수진은 개인적인 성경묵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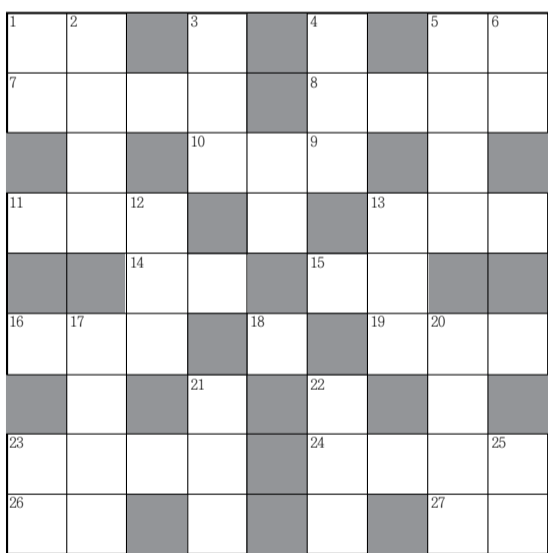
상, 다니엘서, 이렇게 세 과목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3개월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수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도 합니다.  
정기 세미나  
1월 저희 부부가 아르헨티나 방문 중에 있을 때 현지 리더들이 정

기도합니다.  
니카라과 선교대회  
작년 11월 니카라과를 처음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을 통해 2월 Masaya para Cristo 전도대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Masaya para Cristo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총회가 2008년부터 추진한 니카라과 마사야 지역 선교입니다. 이번 전도대회에 참여하여 섬기게 된 분야는 오전 '리더들을 위한 성경묵상 세미나'와 저녁 '전도집회 통역'을

속 깊은 곳부터 우리나라는 감사와 1년 동안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만남들 가운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가는데 동참하게 하여 주시에 다시 한 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박지만/한여정 선교사:  
parkchiman@gmail.com

### 십자말 • Cross Word (34)

####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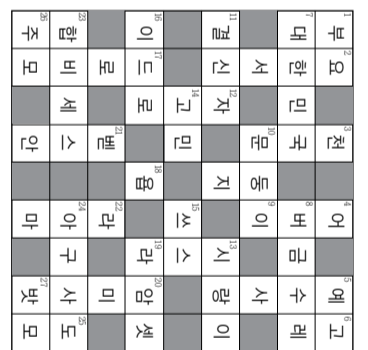
#### <가로 푸는 열쇠>

- 재물이 넉넉함(롬11:12).
- 미리 알림(사47:13).
- 우리나라.
- 두 번째 가는 수레(창41:43).
- 문둥병자(막14:3).
- 민기로 작정한 사람.
- 승냥이와 이리(사13:22).
- 괴로워서 속을 태움(눅16:25).
- 헬라인과 로마인이 숭배하는 큰 신(행19:35).
- 모세의 장인(출3:1).
- 애굽의 동북부 제20주 곧 고센지방의 한 성읍(민33:5).
- 기드온이 에브라임인으로 미디안인을 추격하여 이곳을 취함(삿7:24).
- 아론의 자손이며 제사장 직분을 수행(대상24:15).
-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백부장 율리우스가 소속한 부대 명(행27:1).
- 집안의 살림을 주장하여 다스리는 부인(왕상17:17).
-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조그만 섬(계1:9).

#### <세로 푸는 열쇠>

- 몸집이 뚱뚱하고 큼(신32:15).
- 신약성경 중의 하나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편지.
- 찬송가 544장. 열린 ○○○ 내가 들어가...
- 부모.
- 찬송가 411장.
- 고라의 자손. 에비아삼의 손자(대상9:19).
- 보금자리. 제비○○.
- 자고이래로의 준 말(렘28:8).
- 가나안 북방의 하술왕 야빈의 군대장관(스2:53).
- 에베소인인데 바울과 동행하여 아시아에 감(행20:4).
- 지중해 동안에 돌출한 산성위에 건설된 성읍.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살던 곳(행9:36).
- 다윗의 용사요 삼할 군대의 셋째 장관인 브나야의 아들(대상27:6).
- 잇사갈의 경내이나 므낫세에게 속한 요해지(수17:11).
- 구스의 아들이요 스바와 단단의 부친(대상1:9).
- 여러 가지 약기로 연주함(대하20:28).
- 일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포함(잠12:5).

#### 십자말 정답



###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 순례코스 일정

-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 MISSION VISION TRIP

-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바
-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 보내실곳

-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아세오

###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56)

### 3. 전체 한인공동체에 대한 사역에 임해야



정신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지금까지 한인교회가 한인들을 섬겨왔던 방식의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한인들이 교회를 찾는 비율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면, 기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방식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까. 한인교회가 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의 다각화를 고민함과 동시에, 기존의 것들 중 무엇을 강화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보다 효과적인 섬김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5세 친구들에게 사회심리적 안전지대(comfort zone)를 제공하는 일은 보다 강화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땅의 다른 모든 그룹들에서 소외당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공동체가 나서서 보듬고 그들의 공동체가 되어주고 안정과

사회적 역할 측면에서(사실 신앙적 측면에서도) 전체 한인들을 향한 기독교 교육적 책임을 보다 잘 감당할 수 있는 핵심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한인교회들이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은 비기독교인 한인들과 자꾸자꾸 만나고 교류하며 관계 맺을 까리들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한인교회들이 이러한 사역들을 안했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보다 더 진솔하고 보다 세련된 방법으로, 너무 포교의 목적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녹여내는 교육적 수완을 더 많이 발휘한다면, 한인교회의 사회적 기능도 더 잘 감당할 수 있으며, 이로써 전체 한인들을 섬기는 일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불러 모아

독교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그것일 것입니다. 현재 한인교회 두리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는 기독교 교육의 용사로 섬기도록 말입니다.

꼭 직접적인 복음을 가르치고 나누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한인들과 모범적이고 선한 교류를 하고 그들의 삶에 녹아드는 것에서 출발하도록 독려하면 좋겠습니다. 교회건물이 교회두리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모인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전까지 교회를 다녀야만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유익과 혜택을 그저 대가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시작은 희미했어도 종래에는 확실히 주의 이름을 높이는 모임이 되어 있을 것을

### ‘불러 모아 교육하는 교회’에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교회’로 출석교인들만 얻었던 유익과 혜택, 밖에서 대가없이 베풀어

사랑과 수용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보다 나은 자녀교육을 위해 힘겨운 이민의 삶을 택하고 견뎌오고 있을 부모님들, 특히 교회 다니지 않고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한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가 건물이 있는 큰 교회들의 경우, 교회건물을 부지런히 한인공동체에 개방하는 일 또한 강화하거나 혹은 보다 집중해도 좋을 듯합니다. 그 교회 교인외인 아닌, 기독교 모임이건 아니건(너무 퇴폐적인 모임이거나 목적이 불분명한 모임을 제외해야겠지만) 한인들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한인교회 두리안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면서 말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비기독교인 한인들에게 교회라는 곳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으며, 교회의 너그럽고 베푸는 모습을 통해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자비로우심을 어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와 집중의 예들을 관통하는 기초는, 사실 한인교회들이 한인들과, 특히 비기독교인 한인들과 대면하고 직, 간접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표면적을 넓힐 수 있는 사역의 방안들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하는 교회에서 찾아가서 교육하는 교회를 표방하면 어떻게 제안해 봅시다. 이제는 교회두리의 지경을 넓혀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교회 안에서 수행하는 교육적 섬김을 넘어서(물론 이 부분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기독교 교육, 그들과 함께 하는 기독교 교육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전도하여 교회 안으로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하는 양분된 방법은 교육적 실용성이 그리 많은 듯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들이 웬만해서는 교회에 잘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루두루 다니며 교회건물 밖으로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직접 교육을 실행하는 방식은 매우 험난해 보이고, 이에 오히려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는 사역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직접 감당하려고 생각하니 험난해 보이고 의심이 드는 것일 테지요. 우리 사역자들이 집중해야 할 더 큰 사역의 모습은 모든 한인교회 교인들이 그들의 일상적 삶의 자리에서 비기독교인인 한인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

확실히 믿으며, 당장은 열매가 없을 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인교회가 사회적 기능을 제공하는 것 때문에 교회로 유입되던 한인들의 비율이 현저히 줄었기에, 이에 대한 재평가 및 새로운 방법의 도모는 꼭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인교회의 심리학적 기능이나 교육적 기능은 여전히 그대로 우리 한인교회가 전체 한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요한 섬김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더 다양해지고 더 발전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부끄럽고 예민한 삶의 문제들을 안심하고 상담하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섬김(여성 전화 등)이나 전통 교육 및 한국어교육을 책임있게 제공하는 섬김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야기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사회적 기능의 재평가 및 새로운 방안 모색과 더불어서, 심리학적 기능 및 교육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잘 감당한다면 우리 한인교회가 전체 한인들을 섬기는 교육적 사명을 한층 더 힘있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시9:13-20)

다윗은 모든 것이 너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산 것이 모두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를 물리쳐주신 것도 생각해보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심판하시면서도 나에게서는 늘 미안할 정도로 변호해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무 감사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평생을 살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외면하지 않고 시고 다 응답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화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시10:1)

시 10편은 9편과 계속 이어지는 시입니다. 9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면, 10편에서는 고난 가운데서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0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두 번, 13절의 이 기도는 경건한 성도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내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탄식

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함부로 여호와와 이름을 떨치며, 성도를 박해하는데 그냥 놔두시니까?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닙니까? 하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 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시10:2-12)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들도 고통을 받을 때가 있고 악인의 박해를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나의 환난 때에 숨어 계시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과 이미 가까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악인의 교만과 횡포를 하나님께 낱말이 고하고 있습

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정말 괴롭고 그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악을 대항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손을 드옵소서! 아멘!

### 목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시10:12-18)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귀울이고 들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주님께 내리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본문 “마음을 예비한다”는 뜻은 “누구든지 가까이 나오는 자는 다 위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가 위로를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히11:6, 믿음이 없으면 하

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 것과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만 도움을 구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시다.

### 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시11:1-5)

“하나님께서 그 눈이 인생을 통족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4절). “여호와와 의인을 감찰하신다”(5절). “통족하다, 감찰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빠짐없이 우리 마음 속 깊이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뜻과 함께 “테스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테스트를 통해 연단하시고 크고 비밀한 은혜 즉,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테스트하시

다. 어떻게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많은 복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이미 나는 하나님께 피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교회 밖으로, 성전 외에 다른 곳으로 안내합니다. 주변사람들이 더 좋은 길이 있다고 피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주님께 피했습니다. 이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 토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시11:1-7)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저희를 풍요리되다”(시11:8-10)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길만이 모든 시험에 통과하는 길이요 합격하는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하되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와 보

좌는 하늘에 있음이여...”(4절).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좌정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도 성도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거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통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정직한 자가 그 얼굴을 뵈옵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 미주오순절연합 총회

# 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 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종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상호협력목회위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 (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남,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 (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자
- 4) 목사안수  
① M.A., M.Div sms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② B.A sms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 제출 (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 (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 (소정양식)
- 4) 신상명세서 (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 (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 (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 4. 제출기간

### 5. 기타

4차원영성 글로벌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봉사과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체 활동) 교제와 교류 (정기모임 Net-Work 형성 한국 - 미국)

###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 318-9521 / 최명상 목사 (323) 317-3749

미주 오순절 연합총회(구 순복음 북미수호총회) 총회장 김두경 목사 총무 석종규 목사



# 미국사회 사형제도 지지율 갈수록 떨어져

## 퓨포럼, 미국사회 사형시행부터 현재까지 사형관련 분석 보도

미국 국민 가운데 사형을 찬성하는 비율이 60%로 197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에서는 1608년부터 시작해 1966년까지 1만4천여 명의 사형수가 목숨을 잃었으며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이 중지됐으나 대법원이 1976년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면서 다시 매년 주별로 사형집행이 이뤄져왔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미국의 사형선고 및 집행건수는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59명이 사형돼 2003년보다 6명 감소했다.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사형 제도를 실시중인 주는 39개로 텍사스, 버지니아, 오클라호마 주

가 1977년 이후 집행된 사형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텍사스 주는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범죄율이 감소되는데 가운데, 사형수로 형 확정 받은 미결수들에 대한 좀더 과학적인 조사(DNA)로 무죄로 입증되는 사례가 증가해 사형제도 지지율이 감소되고 있다고 퓨포럼은 분석하고 있다(Lower support for death penalty tracks with falling crime rates, more exoneration).



국제적으로, 사형제 폐지 국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인권 선진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 사형제도가 존속돼온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살인범죄율과 서부 개척시대의 전통, 성경 속에 그려진 인과응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그 배경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살인범죄율이 높을수록 미국 국민의 사형제 지지도도 높아지는데, 최근 수년간 미국의 범죄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 10월 Gallup이 실시한 사형제 지지율도 64%로 94년 80%에서 크게 감소하며 지난 27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의 범죄율은 지난 1990년대 초반

## 범죄율 하락과 사형수 무죄입증 증가 큰 원인 첨단 범죄과학기술 발달 및 공권력 남용 한 몫

에서부터 중반에 절정을 이루었다. FBI에 따르면, 1991년이 최악으로 미국의 범죄율은 10만 명당 758.2%로, 1993년 12월 미국인들 중 25%는 범죄가 바로 미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요소라고 응답할 정도였다. 결국 1994년에는 80%의 미국인들이 사형 제도를 지지했는데, 사형 제도를 통해 범죄율을 막아야한다는 공감대 형성됐기 때문이다.

반면에 1960년대 중반에는 역사적으로 범죄율이 최저치를 나타내 사형제도

에 대한 지지도 역시 47%였다. 그러나 1964년부터 1984년까지 미국의 범죄율은 거의 3배 정도나 증가하여, 1986년 미국인들 중 70%가 사형 제도를 지지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들어와 범죄율이 4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특히 살인이 10만 명당 4.7%로 두드러지게 감소하게 되자, 곧바로 사형 제도에 대한 지지도가 동반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퓨포럼은 사형 지지율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사형수들의 무죄가 입증되면서 2000년경부터 일부 주에서 사형 집행을 유예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DNA 분석이나 첨단 범죄과학 기술들의 발달이 결국에는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뻔했던 사형수들의 무죄를 증명하게 된 것이다. 1989년 이후 1,339명의 혐의가 무죄로 밝혀졌는데 이 중에는 106명의 사형수들도 포함된다.

사형수들의 혐의 무죄는 이러한 첨단

수사방식의 개선이외에도 무죄로 밝혀진 형사범들의 경우, 50% 이상이 잘못된 기소나 검사나 경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6개 주가 사형 제도를 전면 폐지했고 이 가운데 메릴랜드는 올해 폐지했다. 사형 지지 비율은 정당소속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여 공화당원은 지지율이 81%에 달하는 반면 민주당원은 47%이고 무소속은 60%로 나타났다. 민주당원은 1994년 사형 지지율이 75%에 달해 지지 감소폭이 가장 컸다.

따라서 사형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논지는 무고한 사람이 잘못된 판결로 인해 희생될 가능성이 분명하게 맞다는 사실이 이번 설문 조사에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에 따르면 미국에서 1971년 이후 122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풀려났으며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 중 최소 3명이 후일 무죄 증거가 드러났다.

국제엠네스티(AI)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해 3천797명의 사형수가 공권력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4천 272명의 사형집행이 이뤄진 96년에 이어 지난 25년간 두 번째로 많은 사형이 집행된 해로 기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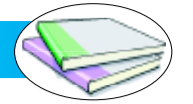
최근 부탄, 그리스, 사모아, 세네갈, 터키 등 5개국이 사형제를 폐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가 폐지된 국가는 120개 국가에 달한다.

사형집행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지난해에만 최소 3천400명이 처형돼 전 세계 사형집행의 90%를 차지했으며, 이란이 159명, 베트남 64명, 미국 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1999년이나 되는 사형수 9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해로 최고이며, 지난 10년 동안 평균 43명의 사형이 집행됐다(2014년에는 14명이 처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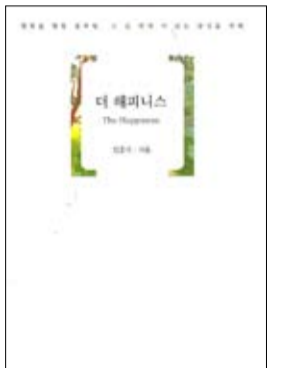
미 대법원이 사형 제도를 1976년 다시 부활시키고 나서, 1,373명이 처형됐다. 그리고 지난 37년 동안 텍사스 주에서 512건, 버지니아와 오클라호마에서 110건 그리고 플로리다, 미조리, 알라바마에서 사형으로 사형수들이 사라졌다.

### 책 소개



저자 임훈식 목사  
(한국 행복한교회 담임)

## “더 해피니스” (The Happiness)



임훈식 목사(한국 행복한교회 담임)가 “더 해피니스”(The Happiness, 한국장로교출판사)를 출간했다.

“행복을 향한 몸부림, 그 길 위에서 서 있는 당신을 위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더 해피니스”는 각 세션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 같은 문제들을 성경속의 인물과 연결해가며 행복한 자로 살아가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저자는 프롤로그를 통해 “어린 시절 유행처럼 사용했던 ‘인생은 항해와 같다/Live is Voyage’는 말을 깊은 뜻도 모르면서 사용했다. 그러나 지금와 생각하니 이 문장의 의미가 참으로 인생과 흡

### 행복을 향한 몸부림,

### 그 길 위에서 서 있는 당신을 위해” 부제

사하게 여겨진다. 때론 잔잔한 바다가 사나운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로 변하듯 순풍에 돛단 듯 순항하던 인생이 갑자기 인생의 거센 파도에 부딪혀 때론 파선하기도 한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인생의 풍량이 올 때든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6:48에 보면 바람이 거스르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다가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다.

본문 중에 등장한 한 여인, 직장생활에서의 승진을 위해 한발 한발 교회를 멀리하던 아름답지 못한 모습과 성경 속에 나타난 삭개오의 이야기를 대비하며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풀어 제시하고 있다.

본서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마주하라’(성경속 인물과 대면하기), ‘무너진 성막을 건축하라’(율법과 행복의 아이러니한 상관관계), ‘새 소망을 선물하는 예수님’(신약에 나타난 행복에 대한 가르침)으로 구분되어 총 25편의 글들로 구성되었다.

저자 임훈식 목사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대학시절을 보낸 후 고등학교 교사생활을 하다 참 행복을 찾아 장로회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그 후 연세대학교에서 종교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중랑제일교회와 영락교회 부교역자를 거쳐 1992년 행복한교회를 개척, 지금까지 행복의 전도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CBS TV와 CTS 파워특강 ‘행복을 찾은 사람들’, ‘행복의 초대’ 등에 출연했다.

▲행복한교회 홈페이지 www.hbhch.or.kr  
(이성자 기자)

### (7면에서 계속)

세 번째, 반혁명적 원리는 정치적 영역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불변의 진리로 고백한다. 즉 기독교 정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 중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즉 “국가의 권위는 교회의 목양의 현장에서 얻어진 원리라기보다는 공직자들의 양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원리는 성경이 정치의 기본이며 기준이 된다는 확신이다. 성경의 원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곧 정치적 문제해결의 열쇠이며 해답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 삶에 적용하고 실행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 정치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서 양심과 법을 따라 하도록 지도하고 근무하는 역할

을 했다. 물론 국가의 직무와 교회의 영적인 권위와는 항상 구별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다.

네 번째 원리로, 제도적 종교에 대한 형평성을 언급했다. 즉 “기독교 국가에 있어서 정부는 ①복음을 표현하는데 한 행정적 법률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국민의 영적인 성장 문제는 정부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것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라도 충돌을 삼가야 한다. ③영원의 문제를 두고 입장이 다른 여러 교회들과 종교단체들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④양심에 거리낌 없이 국가권력에 대한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정부는 하나님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했다. 사실 이 원리는 인간은 그 성격상 종교적이 될 수밖에 없고 민주주의적 사회 다원주의를 인정한다. 그리고 국가와 교

회는 서로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했다. 통치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공무원도 정치가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란은 지금도 국가의 목표 중에 첫째는 하나님(God), 둘째는 조국(Vaterland) 그리고 셋째가 여왕(Koninginn)이라고 한다.

다섯 번째 원리로, 주일(主日)과 사법적 서약이다. 즉 그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반혁명운동은 정부의 통치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통치원리를 고백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주일 성수 자유를 위하여 법정에서 사법적 서약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의 뜻은 주일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의 날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휴식을 주도록 배려하고 있다.

카이퍼의 정치원리는 반혁명원리에 나타났고 그 바탕은 결국 요한 칼빈의 전통에 근거했다. 즉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에 기준이 되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교육의 길잡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카이퍼 주님의 교회와 그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꼭 짚고 바친 이유이다.

카이퍼가 쓴 “반혁명 정치원리”라는 방대한 700여 페이지의 책은 “하나님의 주권”, “일반은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영역주권”, “하나님의 법” 등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그가 쓴 “우리들의 계획”이란 정당정책을 해설한 것인데 카이퍼의 정치원리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학 곧 칼빈주의 사상에서 나왔다.

(다음호에 계속)

# 23년간 함께 울고 웃은 손인식 목사님과 베델 한인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이런 교회가  
잘되는 교회  
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KCC(Korean Church Coalition) 대표강사
  - 해외 3천인 목사단(UTD) 공동대표
  - 이민목회연구원장
  - 이민목회 멘토링 세미나 주강사
  - 교회성장 실험교실 주강사
  - 미래목회 세미나 강사
  - 저서
- (얼바에서 들려오는 통탄복음)

손인식 목사(Peter I. Sohn)는 강원도 철원에서 1948년 12월 30일 황해도 곡산에서 월남한 손원국 장로, 김화비 권사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대광고등학교, 고려대 재학 중 군 입대하여 제대 후 복합하지 않고 Washington D.C.로 이민(1973)가서 Washington Bible College (BA), Capital Bible Seminary (M.Div.)에서 수학했다.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1990년 12월-2013년)로서 복음의 능력을 통한 동량변화와 가정회복, 평신도 사역 개발과 리더십 훈련,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의 역할, 북한 동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교회 역할, 교회 부흥과 선교 부흥의 모델교회, 2세 목회의 여호수아 connection, 영성사역을 통한 한인교회 개혁운동 확산 등에 목회 역점을 두고 있다. 손승욱 사모와의 사이에 아들 세진, 며느리 주혜, 손자 허람, 하준 딸 수진과 사위 최훈, 손자 가림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신다.

‘돌탕’은 돌아온 탕자를 줄인 말이다. 떠난 탕자와 떠 돌아온 탕자들이 돌탕이 되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에 관심을 쏟는

저자는 베델한인교회를 섬기며 나는 은혜를 책으로 펼쳐놓았다.

돌탕들이 주님의 참된 아들인 증인으로 세워지는 교회, 이민목회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베델한인교회의 자취를 함께 엿볼 수 있는

이 책에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돌아온 아들의 회복이 잔잔하게 흐른다.